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2101

2011년 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의 유형과 교육방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현 정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의 유형과 교육방향

A Pattern of witty story and A Scheme of Education in the fiction of Korean narrative songs

2011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현 정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의 유형과 교육방향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현 정

박현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준 철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수 중 인

2011 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의 검토 ·····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 5

Ⅱ.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 ····· 7

1. 재담의 정의 및 유형 ····· 7

1.1. 재담의 정의 ····· 7

1.2. 재담의 유형 ····· 9

2.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의 유형 ····· 21

2.1. 언어요소 활용 방식 ····· 22

2.1.1. 언어유희의 사용 ····· 23

2.1.2. 다양한 수사 표현 ····· 26

2.1.3. 속담과 수수께끼 ····· 28

2.1.4. 삽입가요 ····· 30

2.2. 내용요소 활용 방식 ····· 32

2.2.1. 서술자의 개입 ····· 32

2.2.2. 인물의 비속화 ····· 34
2.2.3. 긴장의 조성과 완화 ····· 38
2.2.4. 금기의 일탈 ····· 39

Ⅲ. 판소리계소설의 재담 교수-학습 방안 ····· 42
1.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재담교육 ····· 42
1.1.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체계 ····· 42
1.2. 개정 교육과정 내의 재담 교육 ····· 45
1.2.1. 7학년 성취 기준 ····· 46
1.2.2. 9학년 성취 기준 ····· 47
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수록 판소리계소설 양상 ····· 48
2.1. 7학년 교과서 ····· 48
2.2. 8학년 교과서 ····· 52
3. 판소리계소설 텍스트를 통한 재담교육의 실제 ····· 54
3.1. 해학과 전통성의 이해 ····· 54
3.2. 판소리계소설 텍스트의 수업 적용 ····· 55

Ⅳ. 결론 ····· 72

참고 문헌 ····· 74
부록

표 목 차

<표 1> 다양한 기준에 따른 유머의 분류 ····· 12
<표 2> 듣기 영역의 내용 체계 ····· 44
<표 3> 말하기 영역의 내용 체계 ····· 44
<표 4> 7학년 교과서 성취기준별 성취 ····· 48
<표 5> 8학년 교과서 성취기준별 성취 기준 ····· 52
<표 6> 7학년 1차시 지도안 ····· 56
<표 7> 7학년 2차시 지도안 ····· 58
<표 8> 7학년 3차시 지도안 ····· 61
<표 9> 9학년 1차시 지도안 ····· 64
<표 10> 9학년 2차시 지도안 ····· 67
<표 11> 9학년 3차시 지도안 ····· 69

국문초록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의 유형과 교육방향

박현정
지도교수 : 김수중
국어교육전공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논문은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을 유형별로 고찰하고, 이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판소리계소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방법과 각도에서 많은 결과를 보였지만, 정작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해학이 잘 나타나는 판소리계소설 내의 재담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2007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재담 관련 성취기준이 새롭게 반영됨으로써, 국어교육에서 부수적인 역할만을 차지했던 기존의 시각이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현대 화법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유머의 개념이 재담의 정의와 유사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유머의 원리와 전제, 그리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분류한 유머의 유형은 언어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언어적인 면은 단어나 어구, 혹은 문장 단위와 같은 언어 그 자체로써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세분화하였으며, 내용적인 면의

경우에는 웃음 유발의 요소가 배경지식이나, 문맥상에서 상황적인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분류 체계를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에 반영하여 언어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분류하였으며, 판소리계소설 내에서도 다양한 재담이 반영되어있다는 것을 하나의 텍스트가 아닌,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판소리계소설에는 다양한 요소의 웃음 유발 장치가 삽입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효용적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을 실제 교육적 텍스트로서 활용하기 위해 먼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개략적 분석을 하였으며,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검정 교과서(7학년 23종, 8학년 15종)에 나타난 판소리계소설 작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당히 많은 텍스트들이 교과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재담 관련 성취기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취기준에 있어 판소리계소설 텍스트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7학년과 9학년에 나타난 재담 관련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각 3차시의 소단원 학습 지도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판소리계소설 텍스트를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 모형을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에 도입해 보고, 실제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A Pattern of witty story and A Scheme of Education in the Novel of Korean Pansori

Park, Hyun-jung
advisor : prof. Kim Su-jung. Ph.D.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patterns of witty stories appeared in the novels of Korean Pansori and to explore the methods to apply this to the 2007 Revised Curriculum.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novels of Korean Pansori revealed lots of results in diverse methods and viewpoints, but the researches on the witty stories in the novels of Korean Pansori, in which the universal sentiments of our people are well represented, have been minimal. Moreover, as the achievement criteria related to witty stories within the 2007 Revised Curriculum was newly reflected, it can be seen that the viewpoints on what has been playing an ancillary role in Korean education have been changing greatly.

So this research classified and presented the principles, premises, and patterns of humor,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ncept of humor that the modern narrative theories deal with is similar to the definition of witty stories. The patterns of humor thus classified were divided roughly into the linguistic aspect and the

contextual aspect, and the linguistic aspect was subdivided into the cases that have the factors for causing laughter by the language itself such as words, phrases, or sentences, and the contextual aspect was subdivided into the cases causing laughter by background knowledge and the cases causing circumstantial laughter by the context.

And by reflecting this classification system on the witty stories appeared in the novels of Korean Pansori, I classified it into the linguistic aspect and contextual aspect, and explained that diverse witty stories were reflected within the novels of Korean Pansori through diverse texts rather than just one text. As the final outcome, it could be seen that diverse factors for laughter-causing devices were inserted in the novels of Korean Pansori and it had the sufficient value as effective texts that can be utilized in education.

And based on these results, in order to utilize the witty stories appeared in the novels of Korean Pansori as actual educational texts, the brief analysis on the 2007 Revised Curriculum was conducted and the works of novels of Koran Pansori appeared in the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reflecting the revised curriculum (23 kinds for the 7thyearclass, 15kind forthe8thyearclass) wereexamined. It could be confirmed that quite many texts were reflected on the textbooks and the texts of the novels of Korean Pansori were utilized not only in simpl e achievement criteri are lated to witty stories but also diverse achievement criteria.

Finally, by presenting the small unit teaching plans each 3 class hour, based on the achievement criteria related to witty stories appeared in the 7thyearclass and the 9thyearclass, I presented the schemes of teaching the learner-oriented texts of the Novels of Korean Pansori so as to adopt and actually utilize the diverse learning model si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of the Korean language.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판소리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종합 예술이다. 판소리는 전문적 기량을 지닌 연창자가 춘향이야기, 심청이야기와 같이 줄거리를 지닌 이야기를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창과 아니리를 섞어 엮어 나가는 연예 형태를 가리킨다.[1] 연희판에서 노래하는 창자와 북을 치는 고수, 그리고 청중으로 이루어진 판소리의 공연 형태는 그 전달 방식이 음률을 지닌 가락이라는 점에서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창과 아니리로 이루어진 사설은 이야기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인 요소를, 그리고 청중을 앞에 두고 공연한다는 점에서 연극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판소리계소설은 판소리의 내용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판소리 사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소리 사설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맥락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판소리 사설이 먼저 발생한 것인지, 혹은 판소리계소설이 먼저인지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선후 관계를 규명하기 이전에 조선 후기, 향유층의 확대로 많은 발전과 변화를 보였던 판소리는 점차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중들의 인기를 잃은데 반해 문학의 형태로 남은 판소리계소설은 두루 읽혀지고 교과서에 실려 조상들의 전통과 생활 모습을 교육하는 텍스트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판소리계소설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본다.

판소리계소설은 지금까지 교육적인 가치를 지닌 텍스트로 널리 쓰여왔지만, 실질적으로 판소리계소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히 교육하기 보다는 문학 수업에서 인물이나 주제와 같은 표면적인 작품 해석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다른 고소설인 <홍길동전>이나 <구운몽>과 같

1) 정병헌, 『판소리와 한국 문화』, 역락, 2002, p.13.

은 작품들을 교육하는 방법과 다를 바가 없고, 이들과 명백하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판소리계소설의 특성을 살리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판소리계소설이 가지는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교육 방안이 필요함과 동시에, 학습자들에게 판소리계소설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향 역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판소리계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유희성(遊戱性)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대의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민들뿐만 아니라 양반들까지 확대된 향유층을 가지고 유행했던 것으로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사회상에 비추어볼 때 책을 가까이 하기 힘들었을 서민들이 다양한 판소리계소설을 즐길 수 있었던 까닭은 전기수(傳奇叟)의 역할이 컸다. 당시의 이야기꾼들이 판소리계소설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재담을 첨가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판소리계소설 자체 내의 오락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서로 다른 이야기꾼들을 통해 구전되는 과정에서 판소리계소설은 기본적인 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하여 그 문체나 표현방법이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것은 수많은 이본(異本)들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판소리계소설에는 다른 고소설들과는 차별화되는 많은 재담이 나타나며, 여기에 나타나는 재담은 단순한 재미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소리를 향유했던 계층들의 생활 모습과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판소리계소설을 이해하는 대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판소리계소설이 교육적 텍스트로서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재담(才談)'에 관한 성취 기준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판소리계소설의 교육적 활용 효과는 예전보다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재담' 관련 성취 기준은 7학년의 '재담에 나타난 재미

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2]와 9학년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한다.'[3]이다. 이런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 판소리계소설을 텍스트로 활용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이 판소리계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전반적인 특성을 다루거나, 어느 한 작품만을 선택해 교육에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판소리계소설을 재담 교육에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다루어졌던 재담에 관란 연구들을 통해 그 유형을 분류하고,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뒤, 어떤 식으로 재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판소리계소설 속에 나타난 재담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판소리계소설은 고전 문학으로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판소리계소설의 문체적 특성을 연구하거나 혹은 판소리계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으나, 실제 교육적 텍스트로서 판소리의 재담에 관한 연구는 전무(全無)한 것이 사실이다. 모든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에 관련한 선행 논의를 소개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이라는 논제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논의는 차치하고, 판소리계소설과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재담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재담 성취기준과 관련한 연구도 그 양은 비록 적지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정리할 것이다.

손행규는 「판소리계소설의 희극성과 계승문제」를 통해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희극성을 분석하여 그것이 현대소설로 어떤 형태를 유지하며 계승될 수 있었는가

2)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2007, p.28.
3) 위의 책, p.84.

를 고찰하였다. 그는 판소리계소설의 희극성은 인물, 사건, 문체의 희극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미의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판소리계소설은 현대소설로 계승됨으로써 생명력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4)]

최정락은 「판소리계소설의 서술방법상 특성」에서 판소리계소설이 다른 고소설들과 변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변별성을 가지게 하는 판소리계소설만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판소리계소설의 서술방법상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판소리 사설과, 판소리계소설, 그리고 일반 고소설을 비교하여 논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판소리계소설은 판소리 사설과 일반 고소설의 중간적인 위치에 존재하며, 두 장르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5)]

김영동은 「판소리 관련 고소설의 재담고」에서 판소리 관련 고소설에 나타난 재담의 개념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재담의 개념과 범위를 주로 언어학적 측면에서 음절과 단어, 어구와 어절, 서술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음절과 단어의 측면에서는 동일음절 및 유이음절의 반복 또는 동일단어 및 유이단어의 반복, 욕설 등을 통해 재담이 성립된다고 하였으며, 어구와 어절의 측면에서는 속담과 수수께끼의 개입, 운자 맞추어 말하기, 육담의 개발 등으로 재담의 유형이 확대된다고 하였다. 서술의 측면에서는 서술자가 서사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과, 우화적 문장기법을 개발하여 모순에 찬 현실 비판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보았다.[6)]

류수열은 「판소리 사설의 언어유희와 그 구연적 성격」을 통해 연행 문학으로서의 판소리가 가지는 구연적 자질을 미시적인 층위인 언어 기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언어유희 현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언어유희는 오락성을 기저 자실로 하여 때로는 경합의 측면에서, 때로는 언어 전략의 측면에서, 때로는 순수한 즐거움의 측면에서 구사되는 언어적 자질이다. 그리고 이것은 구두-청각적으로 연행되는 기반 위에서 기표적 자질이 활성화되는 일종의 기호 놀이라

---

4) 손행규, 「판소리계 소설의 희극성과 계승문제」, 『한국어문학연구』 19, 동악어문학회, 1984.
5) 최정락,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방법상 특성」, 『문학과 언어』 7, 문학과언어연구회, 1986.
6) 김영동, 「판소리 관련 고소설의 재담고」, 『동악어문논집』 35, 동악어문학회, 1999.

고 하였다.[7]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발표 이후, 새롭게 성취기준으로 추가된 '재담'에 관한 연구 역시 진행되었는데, 7학년과 9학년의 성취기준 중 7학년에 편향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 아쉽다.

정혜민은 「재담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를 통해 재담을 정의하고 재담에서의 웃음 유발 원리와 전제를 설명한 뒤, 재담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재담의 국어 교육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재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재담의 국어 교육적 측면에 치중하기 보다는 재담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학습의 텍스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전체적 성취기준을 따르기 보다는 재담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8]

이원규는 「교과서에서의 재담 교육 구현 방향 연구 - 개정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 있는 웃음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와 비교해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웃음 내용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실제 재담 수업을 위한 교과서 단원 설정을 통하여 재담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었다.[9]

3. 연구 방법 및 범위

여기에서는 판소리계소설 속에 나타난 재담을 재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계소설 속에 나타난 재담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재담의 의미와 유형을 분류하여 고전 소설인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에 응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재담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서양 화법 이론 중에서도 재담과 가장 비슷한 개념으로 설정된 유머(Humor) 이론을 바탕으로 판소리계소설 속의 재담을 이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재담 교육에 관

7) 류수열, 「판소리 사설의 언어유희와 그 구연적 성격」, 『국어교육』 10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8) 정혜민, 「재담의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9) 이원규, 「교과서에서의 재담 교육 구현 방향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련된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텍스트로 판소리계소설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실제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에 실린 판소리계 작품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보다 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택해 학습 목표 설정과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지도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문학적 자료로 판소리계소설을 설정하였는데, 판소리 문학[10]이라는 범주에 비추어봤을 때 판소리계소설은 그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신재효가 개작한 판소리 열두 마당과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창작 판소리, 그리고 창극으로 변모한 판소리, 또한 판소리 사설로만 남아있는 <변강쇠전>이나, <옹고집전>과 같은 작품들까지 모두 연구 텍스트로 삼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고 실질적인 구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재 남아 전하고 있는 판소리계소설들 중 현재까지 널리 읽히고 대중성을 가지며 교육 텍스트로도 빈번하게 활용되는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토끼전>, <적벽가(화용도)>를 그 대상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위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검정 교과서에 실린 제재글을 활용하여 학습 목표와 수업 지도안을 제시할 것이다.

10) 이미영(2004)는 판소리 문학의 범주를 판소리 문학의 종류로 판소리, 판소리 사설, 판소리계소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Ⅱ.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

1. 재담의 정의 및 유형

1.1 재담의 정의

재담(才談)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기본 밑바탕에는 서양의 화법 이론 중에서도 '유머(humor)' 이론이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유머 이론을 우리 문학의 재담, 해학, 풍자, 익살의 개념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재담이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담으로 번역될 수 있는 화법 이론의 단어들은 크게 유머(humor), 위트(witz), 조크(jokes)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가장 재담의 정의에 가까운 이론을 선택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Long & Graesser(1989)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현정은 유머를 위트와 조크를 포괄하는 커다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머는 의도적으로든 실수에 의해서든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남을 웃기거나 즐겁게 해 준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조크는 일부러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말이나 짓을 말하며, 앞뒤 문맥으로부터 독립적(context-free)이며,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들어있어서 많은 대화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 위트는 일부러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말이나 짓이라는 점에서는 조크와 같지만, 특수한 대화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문맥 의존성(context-bound)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11] 또한 구현정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말의 익살은 조크에, 해학은 위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웃음을 주는 이야기를 유머와 위트로 양분하고 재담을 위트에 가깝게 정

11) 구현정, 「유머 담화의 구조와 생성 기제」, 『한글』 248, 한글학회, 2000, p.162.

의하는 이론이 있다. 류종영에 따르면, 유머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격적인 기질이나 심리적 기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머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위트가 있는데, 위트는 대부분 추상적이며 언어와 결부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현재의 언어 관용에 의하면 위트는 하나의 정곡에서 절정을 이루는, 웃음을 일으키는 짧은 이야기를 의미한다.[12] 이 이론에 따르면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재담은 위트에 좀 더 가까운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머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유머'를 웃음을 주는 이야기로 규정하고 있다. '웃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다. '웃음'을 준다는 것은 듣는 이의 배경지식, 혹은 문화적 요소, 또는 기분과 같은 듣는 이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머'를 정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으로 '의도성'을 제시하고 있다. 듣는 이가 재미를 느끼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말하는 이가 '웃음'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유머'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필수적인 요소로 '의도성'과 '웃음'을 포함시켜 다시 정의를 내려 보자면, 유머란 웃음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산된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러한 유머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말에서의 '재담'이라고 본다. 물론 서양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정확히 동일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담이 실제로 언어 사회 속에서 구현될 때 청자 혹은 독자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고안된 말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대석에 의하면, 재담은 '재미있는 말을 재치있게 하는 말'이거나 '말을 재치 있게 하여 재미나게 하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3]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듣는 이, 혹은 읽는 이에게 재미를 느끼게 하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재담)의 목적인 것이다.

또한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재담을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로 규정하고, 완전한 이야기의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하더라도 재미있게 사람의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이라면 재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14] 굳이 이야기

12) 류종영, 「유머와 위트」, 『인문과학』 16, 목원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08, p.4.
13) 서대석, 『한국 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3.
14)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 28.

의 구조를 지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모든 말의 통칭을 '재담'이라고 봤을 때 이 입장은 Long & Graesser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구현정의 이론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여기에서 다룰 재담이란, 화자가 청자나 독자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의도된 말이나 이야기를 통칭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재담은 텍스트보다는 음성 언어로 구현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것은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 속에서 재담이 발현되고, 반응을 이끌어 낸 뒤 다시 다른 청자에게로 전달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재담은 휴대폰의 문자 서비스나 인터넷의 활용으로 인한 텍스트의 의사소통과 같은 다양한 문자 언어 활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자 언어를 통해 구현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1.2 재담의 유형

재담의 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재담의 웃음 유발 원리에 대해 먼저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재담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 논의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마다 재담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담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웃음 유발의 원리이며 이러한 웃음 이론들에 기초를 두고 현대의 화법 이론에서 재담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재담에서 웃음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발화자와 수용자가 같은 문화권이 아닐 경우, 발화자의 재담이 수용자에게 웃음을 유발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물론 재담이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담을 수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통의 배경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그 재담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예전에는 통용되었던 유머가 현대에 와서는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이야기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도, 당시의 사회상이나 분위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재담의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배경지식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재담이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장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15] 흔히 이야기 구조를 가지는 재담의 경우에 앞부분의 긴장이 일순간에 이완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경우 적절한 긴장감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진행되어야만 수용자에게서 웃음이 유발되는 것이다.

웃음이 유발되는 원리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현재까지 제시되어 있는 웃음 이론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학자에 따라 그 분류가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로 우월 이론이다. 우월 이론은 열등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했을 때 웃음이 유발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부터 주장했던 이론으로, 단순히 열등한 인물이나 행동이 제시된다고 해서 전적으로 웃음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열등한 인물이나 행동 대신 대상 간의 관계에서 한 쪽이 상대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유머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16]

두 번째로 대조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부조화론, 갈등 이론이라고도 한다. 대조 이론은 불일치에 의한 웃음 유발을 의미한다. 이것은 칸트, 프로이드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예상과 결과의 불합리한 대조에 의해 웃음이 유발된다고 보는 것이다.[17] 불일치에 의한 웃음은 놀람이나 기대의 어긋남, 긴장과 그 이완에서 비롯되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안도감 이론이 있다. 이것은 완화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맥락은 대조 이론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안도감 이론은 일어날 일에 관해서 긴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긴장이 해소 되었을 때 심적 안도감을 느끼게 되어 웃음이 유발된다는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기계성 이론은 베르그송이 주장한 것으로 생명적인 것에 덧붙여진 기계적인 것이 웃음을 유발시킨다는 이론이다.[18]

이 네 가지 이론들은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그 내재적 원리가 유사하다는 것을

15) 이도영, 「유머 텍스트의 웃음 유발 장치」, 『텍스트언어학』7, 1999, p.424.
16) 윤민철, 「유머의 유형 분류에 관한 고찰」, 『우리말연구』27, 우리말학회, 2010, p.278.
17) 이도영, 위의 논문, p.423.
18) 이도영, 앞의 논문, p.423.

알 수 있다. 우월 이론을 제외한 나머지 이론들을 살펴봤을 때, 대조 이론, 안도감 이론, 기계성 이론들은 모두 수용자의 예측을 벗어나는 것이 웃음을 유발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결국 비예측성이 전제되어 있을 때 웃음이 유발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월감의 경우도 단순히 열등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전부 웃음을 유발한다고는 볼 수 없고, 비예측성과 결합했을 때에 웃음이 유발된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비예측성은 웃음의 기본적인 원리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수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혹은 예측이 빗나간 상황에서 웃음이 유발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비예측성이 재담을 구성하고 있는 이탈이나 우월감과 결합하였을 때, 비로소 웃음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탈이란 말하는 사람이 상대를 웃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웃음 유발 부분 이전 내용과의 인지적 불일치를 일으키는 것[19]을 말한다. 단순히 긴장이 완화되거나, 혹은 불일치, 부조화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항상 웃음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용자가 부조화나 이탈, 혹은 우월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웃음이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웃음 유발의 원리를 바탕으로 재담의 유형을 구분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더군다나 고전 문학에서 재담의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는 현대 화법에서의 재담 유형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진행된 연구에 비해서, 예로부터 내려오던 재담은 물론이고 현대에 와서 새로운 전달 방식과 내용으로 나타나는 재담들 역시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며, 그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물론 조선 후기를 필두로 한 고전에 드러나는 재담과 현대의 재담은 많은 차이가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이 많은 수의 재담이 독자 혹은 청자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들을 크게 분류하여 일정한 유형으로 나누는 작업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서는 재담의 정의를 크게 재미를 주는 모든 이야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화법 이론 중에서 유머라는 단어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진다.[20] 그러므로 현대의 화법 이론 중 유머 이론을 유형적으로 분류하고 고찰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 재담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을 중심

19) 윤민철, 앞의 논문, p.277.
20) 여기에서는, 재담(才談)을 유머와 흡사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 유머에 관한 이론들은 재담 이론으로 설명한다.

으로 세분화할 것이다.

현대 재담 이론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재담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자들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유형은 물론, 그 세부적인 예까지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제시한 <표1>은 윤민철(2010)에서 제시했던 유머 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확대시킨 것이다.

<표1> 다양한 기준에 따른 유머의 분류

<table>
<tr><td></td><td colspan="2">손세모돌</td><td colspan="2">이도영</td><td colspan="2">구현정</td><td colspan="3">한성일</td><td colspan="2">윤민철</td></tr>
<tr><td>기준</td><td colspan="2">웃음 유발 원인</td><td colspan="2">웃음 유발 장치</td><td colspan="2">문맥과의 관계</td><td colspan="3">비예측성</td><td colspan="2">유머의 구조와 원리</td></tr>
<tr><td>분류</td><td>언어</td><td>내용</td><td>언어적</td><td>비언어적</td><td>익살</td><td>해학</td><td>예측하지 못한</td><td>예측하기 어려운</td><td>잘못 예측한</td><td>문맥과의 관계</td><td>원리</td></tr>
<tr><td rowspan="2">비고</td><td rowspan="2">언어에 의한 유머의 형성</td><td rowspan="2">희화화를 바탕으로 한 유머의 형성</td><td rowspan="2">언어가 지닌 여러 요소</td><td rowspan="2">언어와 직접 관계 없는 요소</td><td rowspan="2">독립적인 구조</td><td rowspan="2">특정 대화 상황과 문맥</td><td rowspan="2">단서 제공 없음</td><td rowspan="2">예측 유도 하나 추론 어려움</td><td rowspan="2">수용자 잘못 예측</td><td>문맥 연결형</td><td>창조형 유머</td></tr>
<tr><td>문맥 분리형</td><td>공격형 유머</td></tr>
</table>

손세모돌의 경우는 재담의 유형을 크게 언어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이를 언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음이의어, 음상의 유사 이용 등과 내용적 요소로 대상의 희화화, 대상의 특징이나 전형성 이용하기, 전형적인 상황 제시, 상식 깨뜨리기, 연상 이용하기, 패러디하기, 자조적으로 표현하기, 의사소통 실패 이용하기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21]

21) 손세모돌, 「유머 형성의 원리와 방법」, 『한양어문』17, 한국언어문화학회, 1999.

이도영은 재담을 웃음 유발 장치에 따라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언어적인 것은 언어가 지니고 있는 여러 요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발음 활용하기, 단어나 어구 파괴하기, 사투리 활용하기, 받침 활용하기, 음성 연상 활용하기, 대구 활용하기 등으로 세분화 했으며, 비언어적인 것은 언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여러 요소들을 중심으로 동문서답하기, 고정관념 이용하기, 특징 찾아 핵심 찌르기, 정곡 찌르기, 우스운 상황 연출하기, 함정 만들기, 배경지식 충돌시키기, 패러디 하기, 과장하기, 형태에 의미 부여하기 등으로 구분 짓고 있다.[22]

구현정은 문맥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재담을 분류하여 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익살과 특정한 대화 상황 문맥에만 적용되는 해학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구현정은 웃음이 대화의 원리를 위배하는 데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23]

한성일은 웃음 유발의 원리로 비예측성을 들고 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세 가지 범주로 재담을 구분하고 있다. 특별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와, 예측을 유도하지만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독자나 청자가 추론하기 힘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수용자가 예측은 하지만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되는 잘못 예측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24]

그리고 윤민철은 재담의 유형 분류 기준으로 문맥과의 관계와 유머의 원리를 들고, 문맥과의 관계에서는 문맥 연결형과 문맥 분리형을, 유머의 원리를 기준으로는 창조형 유머와 공격형 유머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결합시켜 문맥 연결-창조형 유머, 문맥 연결-공격형 유머, 문맥 분리-창조형 유머, 문맥 분리-공격형 유머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손세모돌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현나는 언어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 이외에 비언어적인 것을 추가하여 언어내적인 것과 언어외적인 것으로 나눈 후 언어내적인 것에는 언어적 · 반언어적인 표현으로 형성되는 유형, 언어외적인 것에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형성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25]

---

22) 이도영, 앞의 논문, pp.421~445.
23) 구현정, 앞의 논문, pp.159~184.
24) 한성일, 「유머 텍스트의 구조와 원리」, 『화법연구』 7, 한국화법학회, 2004.
25) 김현나, 「유머 텍스트를 활용한 화법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18.

이처럼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손세모돌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언어적인 요소를 활용한 것과 내용적인 요소를 활용한 것으로 재담을 분류하고 세분화하도록 하겠다.

1.3.1 언어적인 요소를 통한 재담

재담에 나타난 언어는 그 자체로 재미를 주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를 흔히 말놀이(pun)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언어유희는 고전과 현대를 아울러 두루 쓰이고 있는 표현이다. 특히 언어유희는 작자와 독자, 혹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재치를 통해 웃음을 주기 때문에 비예측성을 웃음 유발의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언어유희에 의한 유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자 상호간에 언어 표현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수적이다.[26]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언어유희에 포함된 의외성이 전달되지 않으며, 결국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언어유희의 종류로 동음이의어, 다의어를 통한 중의적인 표현, 음상 유사를 이용한 표현, 대구 형성하기, 사투리 활용하기, 단어나 어구 파괴하기 등이 있다.

동음이의어는 뜻은 다르지만 소리가 같은 언어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음이의어는 그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담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재담에 쓰이는 동음이의어는 완전동음어와 부분동음어 모두 쓰이는데, 국어는 발음할 때 연음에 의해 동음이 되거나 말음 법칙에 의해 동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철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은 낱말을 동음어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7]

떡이랑 참기름이 싸웠다.
그런데 떡만 교도소에 갔다.
그 이유는 참기름이 고소해서.

---

26) 손세모돌, 앞의 논문, p.11.
27) 위의 논문, p.12.

그런데 며칠 후 참기름도 교도소에 갔다.
그 이유는 떡이 불어서.[28]

위의 재담은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유머의 하나이다. '참기름이 고소하다.'라는 말과 '불다'라는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의어를 재담에 활용하는 것 역시 앞서 말한 동음이의어를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의어는 여러 가지 뜻을 지닌 단어로 이때 다의어가 가지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뜻까지 포함한다.

김정일이 서울에 못 오는 이유

거리에는 총알 택시가 너무 많다.
골목마다 대포집이 너무 많다.
간판에는 부대찌개가 너무 많다.
술집에서는 폭탄주가 너무 많다.
가정은 집집마다 핵가족이다.[29]

위의 유머는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다의어나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다의어나 동음이의어가 재담에 사용되는 까닭은 중의성을 가진 단어나 어구가 수용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해석됨에 따라 의외성의 재미를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음상의 유사 활용하기는 소리가 비슷한 것을 활용하여 재미를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음상의 유사를 활용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동음이의어나 다의어를 활용하여 재담을 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음상의 유사는 그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음상의 유사는 어떤 소리까지가 유사의 범주에 든다는 한계가 없고, 언어 단위에도 제한이 없으며, 그 대상에는 우리말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담에 활용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할 수 있

28) 김이리 엮음, 『웃음 팡팡 유머 여행』, 지식서관, 2010, p.61.
29) 위의 책, p.39.

다.[30]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잠을 막 깬 손자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우리 강아지 잘 잤니? 허허.”
그랬더니 손자도 할아버지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굿모닝?”
“구 머시기?”
“예,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좋~았어!”
할아버지는 자신을 평소 무식하다고 여기는 할머니에게 가서 유식한 체 하려고 할머니의 귀에 대고 ‘국머닝’하고 속삭였다.
그런데, ‘국 뭐니?’로 알아들은 할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국은 감자국이유.”[31]

‘굿모닝’이라는 영어 표현과 ‘국 뭐니?’라는 우리 말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위의 유머처럼, 영어가 현대 유머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어가 그만큼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대구 활용하기는 비슷한 유형의 구절을 반복함으로 인해 형성되는 리듬감을 통해 재미를 주는 방식이다. 이것은 언어가 반복될 때 나타나는 운율을 그 재미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언어유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아들과의 관계

1.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2.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3. 빚진 아들은 내 아들.[32]

위의 예문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 현대의 사회 모습을 풍자하는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표현상으로는 대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30) 손세모돌, 앞의 논문, p.14.
31) 김이리 엮음, 앞의 책, pp.30~31.
32) 위의 책, p.210.

사투리 활용하기는 지역마다 다른 토속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이야기를 반전 시키거나 또는 상황에 맞지 않는 사투리의 사용으로 인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의 사투리가 갖는 향토성에 기반한 웃음 유발 장치라 할 수 있겠다.

경상도 할머니와 서울 할머니가 끝말잇기를 하기로 했다.
서울 할머니 : 계란
경상도 할머니 : 란닝구(런닝셔츠).
서울 할머니 : 어, 어?
경상도 할머니 : 와~예?
서울 할머니 : 외래어 쓰면 안 돼요.
경상도 할머니 : 그라믄 다시 합시더.
서울 할머니 : 장롱
경상도 할머니 : 롱갈라묵기(나눠먹기).
서울 할머니 : 사투리 쓰면 안 돼요.
경상도 할머니 : 그라마 함마 더 해봅시더.
서울 할머니 : 노을
경상도 할머니 : 을라(아이).
서울 할머니 : 집어쳐![33]

단어나 어구 파괴하기는 단어나 어구를 제멋대로 분리하거나 결합하여 새로운 말이나 의미를 만들어 내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34] 기존의 단어나 어구를 분리하여 새로운 압축어를 만들어 내거나 혹은 단어를 낱낱이 풀어헤쳐 본래의 의미와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걸작 (걸레 같은 작품)
지성인 (지랄 같은 성격의 인간)
원앙부부 (원망과 앙심이 많은 부부)
약속 (약간씩 속이는 것)
정의 (정치가 개입하면 의심스러워 지는 것)

33) 앞의 책, pp.28~29.
34) 이도영, 앞의 논문, p.429.

1.3.2. 내용적 요소를 통한 재담

재담에 있어서 내용적 요소를 어떤 의미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학자들 간의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지만 여기에서 내용적인 요소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재담 내에서 형성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 상황 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구분한다. 재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야기가 가지는 내용 그 자체가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일 경우에도 재담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담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요소에는 대상 희화하기, 대상의 특성이나 전형성 이용하기, 상식 깨트리기, 동문서답하기, 의사소통 실패 이용하기 등이 있다.

대상 희화하기는 인물과 관련된 요소인데, 이야기를 구성하는 인물이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하거나, 혹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웃음 유발의 원리 중에서도 우월감 이론에 근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대상이 되는 인물을 희화화함으로써 수용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를 만들고 그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 추운 겨울 날 어느 고등 학교 수업 시간.
> 화장실을 다녀온 영어 선생님이 급하게 수업 시간에 들어왔다.
> 급하게 온다고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 교실에 들어왔는데 학생들이 깔깔 웃고 야단이었다.
> 이 때 용감한 학생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다.
> “헤헤, 선생님 문 열렸어요!”
> 그러자 선생님이 하는 말,
> “야!~ 맨 뒤 학생 나와서 문 닫아!”[35]

위의 예문은 선생님이라는 존중의 대상을 우스꽝스러운 발언을 하게 함으로 권위를 추락시켜 학생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되는 상황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유머의 예로는 흔히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을 희화화하거나 우스운 상

35) 김이리 엮음, 앞의 책, p.146.

황을 일부러 설정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며 때로는 이를 통해 사회 상황에 대한 풍자나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상의 특성이나 전형성 이용하기 역시 인물과 관련된 내용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전형적인 성질을 빗대어 표현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우에 생성된다. 넓게 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인물 희화하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이 요소는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성격을 모방하거나 비웃음으로써 형성되는 웃음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대상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기도 하지만, 모방하는 과정에서 우스꽝스러운 비유를 사용하거나, 혹은 행동적 특성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학생 둘이 싸우고 있었다.
경영학과 교수 : 쯧쯧, 돈 안 되는 녀석들.
의류학과 교수 : 옷 찢어질라.
행정학과 교수 : 경찰 불러!
응용통계학과 교수 : 일주일에 한 번 꼴이니…….
아동학과 교수 : 애들이 보고 배울라…….
신방과 교수 : 남들이 보고 있다는 걸 모르나?
중문과 교수 : 초전박살! 임전무퇴!
신학과 교수 :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식물학과 교수 : 박 터지게 싸우네.
축산학과 교수 : 저런 개새끼들!
법학과 교수 : 너희들 다 구속감이야!
사진과 교수 : 너희들 다 찍혔어.
식품영양학과 교수 : 뭘 먹었기에 저러지?
광고학과 교수 : 여러분~ 저 녀석들 좀 보세요!
미생물학과 교수 : 저런 썩을 놈들을 봤나~.[36]

상식 깨트리기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인 대답을 비틀어 표현함으로써 수용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의외성에 웃음이 유발되는 유형이다. 이도영은 이러한 상식 깨트리기의 유형으로 배경지식 충돌시키기와 고정관념 이용하기 등을 분

36) 앞의 책, pp.193~194.

류하고 있는데 큰 의미에서 보면 모두 다 구성된 상황의 마지막에 비예측성을 기준으로 웃음이 유발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배경지식이나 고정관념이 수용자의 생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상식의 개념에 가깝다고 여겨지므로 비슷한 맥락의 유형이라고 생각된다. 고정관념 이용하기는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독자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하여 결말 또는 반전의 내용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것[37]을 말하며, 배경지식 충돌시키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교묘히 결합하여 웃음을 증폭시키는 방법이다.[38]

> 목사가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가 키가 작은 아이가 제 키보다 훨씬 높이 달려 있는 초인종을 누르려고 낑낑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 보다 못한 그는 우아한 폼으로 아이를 안아 올려 초인종을 아주 길게 누르게 해 주었다.
> 그러고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 “이제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꼬마 신사님?”
> 그러자 아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 “튀어요!”[39]

동문서답 하기는 두 인물 혹은 여러 대상 간의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재담의 유형이다. 동문서답 하기의 유형은 ‘오해, 의도적 오해, 궤변, 논점 일탈’ 등이 있다.[40] 오해는 한 인물이 하는 말을 다른 인물을 제대로 듣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하고, 의도적 오해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 척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한다. 궤변은 교묘한 논리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그럴 듯하게 꾸며내는 것을 말하며, 논점 일탈은 대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유형이다. 손세모돌이 분류한 의사소통 실패 이용하기 역시 이 동문서답 하기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37) 이도영, 앞의 논문, p. 436.
38) 위의 논문, p. 440.
39) 김이리 엮음, 앞의 책, p.147.
40) 이도영, 위의 논문, p. 434.

혀가 짧은 오돌이가 친구와 초원 갈비에서 만나기로 했다.
초원 갈비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오돌이는 먼저 114에 전화를 했다.
“네, 무엇을 안내해 드릴까요?”
“초원 갈비요.”
“네, 소원 갈비 말씀이십니까?”
오돌이가 초원 갈비로 정정하려고 했는데 바로 전화 번호로 넘어가 버렸다.
하는 수 없이 오돌이는 다시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소원 갈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오기가 생긴 오돌이는 다시 전화를 해서,
“초원 갈비요! 초록색 할 때 초! 소원 할 때 원!”
하고 고함을 쳤다.
그런데, 또 다른 동네로 연결되어 버렸다.
너무 화가 난 오돌이는 다시 전화를했다.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해!”
그러자 상담원이 하는 말,
“네네, 안녕 모텔 말씀이십니까?”[41]

위의 유머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반전되지 않고 끝까지 의사소통의 불가능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청자 혹은 독자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

2.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의 유형

우리나라 고전 문학 작품들 중에서도 판소리계소설이 가지는 문학적 가치는 크다. 판소리계소설은 판소리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복합적인 예술 양식에서 구연(口演)되던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42] 물론 학자에 따라서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의 선후(先後)관계에 대한 많은 관점이 제시되었는데, 판소리가 연행되는 과정

41) 김이리 엮음, 앞의 책, pp.180~181.
42) 판소리계소설과 판소리의 선후 관계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에서 그 사설이 문자로 정착되어 판소리계소설로 생성되었다는 가설과 판소리계소설의 내용이 전기수(傳奇叟)를 통해 구연되는 과정에서 인기를 얻어 판소리로 생성되었다는 가설로 양분(兩分)할 수 있다. 그 내용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인해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은 묶어서 판소리 문학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논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판소리계소설의 처음 시작은 구전(口傳)으로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야기꾼의 입담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판소리계소설은 청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재담(才談)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판소리계소설의 다양한 이본(異本)들은 그 문체적인 성격이 각기 다르고 전체 플롯의 형태를 제외한 세부적인 내용은 많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다양한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은 우리 민족 특유의 성격과, 감성,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앞에 설명했던 현대 화법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머 이론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말에서의 ‘재담’이라는 용어와 '유머'라는 용어는 완벽한 일치라기보다는 유사한 용어에 가깝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서양의 화법이론에 나타는 유머의 유형 구분을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의 이론에 완벽하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재담들을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정형화시켜 논의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화법 이론에서 다루었던 기준인 언어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로 구분하되, 그 활용 방식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시 말해서, 재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 언어요소를 활용하는 방식과 내용요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되,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유형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1 언어요소 활용 방식

먼저 판소리계소설의 재담은 그 어휘를 구성하고 있는 음절이나 어구와 어절을

통해 드러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언어적 요소를 활용한 방식으로 구성된 재담은 그 자체로도 즐거움을 주며, 소설 속에 나타난 대화나 혹은 묘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을 지닌다. 판소리계소설에서 나타난 재담은 보통 언어유희(pun)의 사용이나 다양한 수사적 표현, 속담과 수수께끼 혹은 삽입가요와 같은 언어요소를 활용한 방식으로 재미를 준다. 여기에서는 위에 제시한 언어요소를 중심으로 재담을 분류하고자 한다.

2.1.1 언어유희(pun)의 사용

언어유희, 곧 말놀이란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한 놀이를 총칭하는 것이다.[43]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말놀이 중에서도 동음이의어놀이, 파자놀이, 운자 맞추기, 의성어와 의태어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말놀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를 활용한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동음이의어 수법은 한자 어휘가 많은 우리말의 경우 매우 많이 나타나는 기법이다.[44]

> 이게 무신 글쓰 잇ᄂᆡ 이리쥬쇼 어듸보ᄉᆡ 갑풀 보 은혜 은 박 표 보은표 보은표 츙청도 옥쳔 엽페 그런인ᄀᆡ 이 졔비가 올 젹의 공쥬로 뇌셩으로 은진으로 온거시 안니라 보은으로 옥쳔으로 연ᄉᆞ으로 이리 왓나 열러 고을 지ᄂᆡ오며 엇지 쪽 보은 박씨 무엇ᄒᆞ자 물어왓나 보은 ᄃᆞ초 좃타ᄒᆞ되 박 좃탄 말 못 들엇졔 그리ᄒᆞ나 져리ᄒᆞ나 강남 써실넌지 보은 써실넌지[45]

위의 장면은 흥보가 다리를 고쳐준 제비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박씨를 물어다 주는 장면이다. 박씨에는 '보은포(報恩匏)'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여기

43) 성호주, 「한국어의 언어유희 - 동음이의어의 말놀이(pun)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10,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83, p.59.
44) 서대석, 앞의 책, p.114
45) 김진영· 차충환· 김동건 교주, 『흥보전』, 민속원, 2005, p.102.

에서의 보은과 충청도의 보은이란 지명이 같은 음을 가지고 있어 나타나는 말놀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파자, 해자 놀이인데 이것은 한자의 자획을 풀어 나누는 말놀이이다. 이를 테면, 이(李)자를 '木子'로 풀이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단어, 어구 파괴하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각각의 자획을 풀어 나눠 뜻을 풀이하는 놀이인 파자 놀이의 예로 심청전에서 심봉사가 맹인들을 만나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 심봉사 허는 말이
> "우리 통성명이나 헙시다."
> 좌중이 옳다허고 성명을 통하는디, 글자 파자 식으로 말을 허니, 유식헌 봉사 하나 옆에서 해석을 허든 것이었다. <중략>
> "예 내 성은 갓 쓰고, 초마 입은 자에, 이름은 읽을 독 자, 글 경 자요."
> "아, 당신이 바로 경문 잘한 안독경이오그려."
> "예, 그러허옵니다."
> 이번은 옷깃차례 심봉사라. 이 편 성자 생각허니 파자를 헐 수 없어 거짓말로 꾸민 게 가기지방 되었구나.
> "내 성은 본시 잠길 침 자로서, 아래 하 자 하서방과 사돈을 허였더니 사돈이 말허기를 제 성은 하뻘이요, 사돈 성은 넉 점이라. 점 하나만 달라 허고 밤낮으로 졸라대니, 사돈 처지에 할 수 없어 오른편에 찍힌 점을 뚝 떼어 주었더니 그 사람은 변가 되고 이름자는 꿇고 앉은 자와 간짓대에 새를 매단 자요."
> 저 봉사 듣더니,
> "가만 있자. 잠길 침 자에 오른편 점을 떼었으면 심 씨가 분명허고, 꿇고 앉으면 학자요, 간짓대에 새를 매달면 아홉 구 자도 되고, 몬은 규 자도 되니 당신이 심학규요?"[46] <후략>

위의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맹인들이 서로 자신의 이름을 파자로 풀이하여 소개하는 부분에서 파자를 통한 재담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

46) 최동현 교주, 『김연수 완창 판소리 다섯바탕 사설집』, 민속원, 2008, pp.397~399.

다음으로는 ‘운자 맞추기’를 살펴볼 것이다. ‘운자 맞추기’는 짝수행의 끝 글자에 동일한 운목(韻目)의 글자를 맞추는 한시의 작법을 모방한 것이다.[47] 그러나 중국의 한자와는 다른 말의 구조를 가진 한국의 말문학의 담론에서는 한시에서의 운자 맞추는 규칙을 최대한 수용하여 동일한 음절 또는 단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부여하였는데, 이것은 단어를 반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구와 어절에서도 사용되었다.

> 빅만 군죨 나도 닷도 못ᄒᆞ여 슘막키여 코막켜 살도 맛고 충도 맛고 불의도 타지고 무르도 빠지고 츄두난ᄋᆡᆨ 되야난듸 이 놈 쥭고 져 놈 쥭교 안져 쥭고 셔셔 쥭고 알타 쥭고 웃다 쥭고 우다 쥭고 조우다 쥭고 ᄌᆞ다 쥭고 ᄋᆡ써 쥭고 쏭싸다 쥭고 불쑹이 쥭고 원통이 쥭고 가이업셔 쥭고 한부로 쥭고 뒤발ᄑᆞ여 쥭고 팔도 질끈 다리도 부러져 쥭고 눈도 빠져 쥭고 ᄯᆡ굴 ᄯᆡ굴[48]

‘죽고’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죽음의 모습을 리듬감 있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어적인 면에서는 재담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처절한 군사들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함을 지닌다.

다음으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한 말놀이를 살펴보겠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우리말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의성어와 의태어라는 어휘 자체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기 때문인데, 판소리계소설에서는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가 자주 나타난다.

> 말이 맛지 못ᄒᆞ여 쳉포션쳑이 사방의로 달여드려 쥭살한니 죠죠 ᄃᆡ경ᄒᆞ여 문병불너 방젹ᄒᆞ랴 ᄒᆞᆫ니 문빙이 나오다 살을 마ᄌᆞ 쩌려지고 거호포 승기젼과 쐬쐬 나발 쇼릐 두리둥둥 뇌고치며 번ᄀᆡ 갓치 달여들 졔 고함이 진동하며 불 벗셕 강ᄉᆞ니 문어지고 두 번 불 펏셕 쳔지가 밧구난 듯 셰번을 불노 친니 화광이 츙쳔 쳔지가 뒤넘난 듯 풍셩은 우류륭 유류륭 물결은 출넝출넝 젼션 뒤쭝 뒤쭝 돗ᄯᆡ 질근 용총도 써려지고 닷쥴도 끈어지고 기치 펄펄 써려져 중막또 쑈각 쑈각 화젼

47) 김영동, 「판소리 관련 고소설의 재담고」, 『동악어문논집35』, 동악어문학회, 1999, p.212.
48) 김진영, 김현주 역주, 『화용도』, 박이정, 2000, p.122.

궁젼 방픽 통슈와 그거 말중과 마람쇠며 나발 징징과 북과 웽그렁 졍그렁 찰찰 산슨 씨야져 물례 풍덩실 강파말니 예슈만 젼션 간듸업고[49]

위의 장면은 <화용도>에서 조조군이 기습을 당하는 대목이다. 실감나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전쟁 당시의 긴박한 분위기가 전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말놀이를 통해 판소리계소설은 독자에게 긴장감과 흥미를 주며, 리듬감을 느끼게 해준다.

2.1.2 다양한 수사 표현

수사는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나있는 다양한 비유법과, 대구, 반어, 과장 등을 통칭하는 단어이다. 판소리계소설은 판소리 사설에 그 시작점이 있는 만큼 듣는 이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과장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 수사를 재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다양한 수사적 표현은 읽는 이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만든다는 점에서 재담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비유를 들 수 있다. 비유는 단순히 하나의 대상에만 빗대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열거와 함께 과장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날도 흥보딕이 열여 ᄌᆞ식놈덜 어메 밥 쇼릭의 졍신을 못 ᄎᆞ려셔 버신발의 두 숀 불고 의문 밧기 나셔 보니 흥보 방장 건네올 졔 지도 메도 안니ᄒᆞ고 빈 숀 치고 졍신 업셔 비틀비틀 오난 거동 조창빅 걱졸 노셔 일쳔셕 실은 곡식 풍낭의 파션ᄒᆞ고 십ᄎᆞ 형신 숨연 쳬슈 고상 격고 오난 양은 ᄃᆞ 바리 고마 마부 관가 복물 실고 갓다 빅량ᄌᆞ리 말 죽이고 쥬막 쥬막 빌어먹어 빈 ᄎᆡ 들고 오난 모냥 경ᄉᆡᆨ이 말 안되야 흥보딕이 깜작 놀ᄂᆡ 숀목을 ᄌᆞ부면서 어이 그리 지쳬ᄒᆞ고 어이 그리 심난 ᄒᆞᆫ가[50]

이 부분에서는 흥보의 처가 놀부에게 맞고 온 흥보를 맞이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49) 앞의 책, pp.120~122.
50) 김진영· 차충환· 김동건 교주, 앞의 책, pp. 74~76.

흥부의 모습을 장황한 상황 묘사를 통해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비유법은 판소리계소설의 곳곳에 나타나는데, 대개 한 대상을 다른 하나의 대상에 비유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대상의 비유를 동시에 열거하는 방식이 많이 나타나며,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실감나게 묘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과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판소리계소설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과장된 표현을 많이 사용해 청자들의 호기심을 많이 유발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서술자가 서사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일어나거나, 혹은 전고, 한시구를 과장해서 오용함으로써 양반층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부분들도 있다.

> 화공을 불너셔 톡기 화상을 그린다 동졍 유리 쳥홍연 금슈츄파 거복 연적 오젹어 불너 먹 갈여 빅능셜화 쟝지 상의 이리 져리 그릴 제 난초 지초 모란 화초 꼿 싸먹든 입 그리고 쳔ᄒᆞ명산 승지간의 경가 보던 눈 그리고 쥴임비조 우지질 졔 소리 듯던 귀 그리고 만화방충 화림 중의 펄펄 쒸던 발 그리고 엄동셜ᄒᆞᆫ 치운 씨의 방풍ᄒᆞ던 털 그리고 얼푼 그려 ᄂᆡ쓰리니[51]

토끼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마치 산군의 모습을 표현하듯이 과장되게 묘사하는 이 장면은 토끼라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의 성품이나 혹은 토끼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과장법은 판소리계소설 대부분에서 열거와 함께 나타나며 열거를 통해서 더욱더 과장스럽게 강조하는 표현상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셋째로, 열거법인데 이것은 과장과 비유가 쓰일 때에 대부분 함께 쓰인다. 열거법은 장황할 정도로 늘어선 어휘들을 계속해서 나열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하고 실감나게 표현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동시에 리듬감을 형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ᄃᆡ중군방의 벌목하기 오귀방의 아ᄉᆞ권키 삼살방의 집짓키와 ᄒᆞ산한ᄃᆡ 기잡기와 이웃 쳐ᄌᆞ 무암 너키 시앗 씀의 츙동하기 ᄉᆡ 메토리 압츙 베기 ᄑᆡ난 픅식 웅지 법키 들짐 지 놈 다리 ᄎᆞ고 만셕 당혜 운도 볘고 흔ᄃᆡᄉᆞ의 희방하기 즘ᄌᆞ넌 놈

51) 김진영, 김현주 역주, 『토끼전』, 박이정, 2000, p.62.

눈셥 쌥기 초상난 ᄃᆡ츔추기와 불붓난 집 부치질과 셰쵸 ᄯᆡ 슈슐 쌥기 곱ᄉᆞ등이 뒤집어 녹키 상부 멘 놈 헛투 치고 옹긔찜의 ᄌᆞᆭᄃᆡ기 ᄎᆞ기 오죰 누넌 놈 멱살 즙기 합푸암하넌 놈 ᄌᆡ지녹키 글씨넌 놈 역구레 슈시기 돈 셰넌 ᄃᆡ 말 뭇기와 근ᄂᆡ 쒸난 ᄃᆡ 목쥴 비기 널 쒸난ᄃᆡ 돌을 너코 ᄉᆡ 갓 보면 쌈ᄃᆡ 써고 죠흔 망건 편ᄌᆞ 슨키 영천도문 악담하기 혼인 ᄃᆡ사 큰상 ᄎᆞ기 부형쇼의 곤셜 ᄒᆞ기 불ᄯᆞᆼ한 놈 쌈을 치고 고단한 놈 슝당을 ᄎᆞ고 일연 고로 ᄃᆡ려다가 츄슈 모셩 하여 논ᄃᆡ 옷셜 벅겨ᄂᆡ여 쑈기[52]

놀보의 궂은 심사와 악행을 표현하기 위해서 줄줄이 그의 행동을 열거하고 있는 이 장면은 열거법이 재담으로 쓰인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열거를 통하여 놀보가 심술궂은 사람임을 독자는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으며, 그의 행동의 우스움으로 인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같은 음보의 반복으로 인해 리듬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효과를 보여준다.

2.1.3 속담, 수수께끼

우리말의 속담은 일상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관습적으로 굳어져 내려오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판소리계소설을 향유했던 독자들은 속담이 가진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속담은 주로 상황 묘사를 할 때 비유적 표현의 하나로 쓰인다. 그 상황 자체가 우습고 재미있는 상황에서 속담 하나로 그 장면을 날카롭게 비유해내는 서술적 효과를 통해 독자들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토기 그 말 듯고 슈샹이 역여,
“어허 실타.”
ᄒᆞ고 고개를 흔들면셔 ᄀᆞᆯᄋᆞᄃᆡ,
“그ᄃᆡ 말은 비록 됴흐나 아마도 위ᄐᆡᄒᆞ지. 속담에 닐아기를 노루 피ᄒᆞ면 범 만ᄂᆞ다 ᄒᆞ고, 불가ᄃᆡ명은 독안에 드러도 못면ᄒᆞ다 ᄒᆞ엿스니, 륙디에셔 살다가 무ᄉᆞᆷ 외입으로 공연스례 슈궁에 드러가리오.…”[53]

52) 김진영· 차충환· 김동건 교주, 앞의 책, pp.252~256.

"…넷말에 닐넛스되 범의 굴에 드러가지 아니ᄒᆞ면 엇지 범의 ᄉᆡᆨ기를 엇으리오 ᄒᆞ엿스니, ᄃᆡ쟝부가 세샹에 나셔 ᄌᆞ긔 일신ᄉᆞ업을 홀진ᄃᆡ, 되면 좃코 안니 되면 마자 ᄒᆞ고 로질부질 ᄒᆞ여 볼 거시지, 긋가짓 것 무엇이 무셔워셔 계집아ᄒᆡ ᄐᆡ도쳐럼 요리 쌕깃 조리 쌕깃 져무도록 시간만 허비ᄒᆞ리요.…"[54]

뎌 바희 밋헤셔 너구리 달첨지가 썩 나셔셔 ᄒᆞᄂᆞᆫ 말이,
"토기야, 너 어ᄃᆡ 가나뇨? ᄂᆡ 앗가 수풀 겻헤 누어셔 너희 두리 ᄒᆞᄂᆞᆫ 슈작을 쳐음으로부터 끗ᄭᆞ지 ᄃᆡ강 드럿지만은 아마도 위ᄐᆡᄒᆞ지. 넷말에 위태ᄒᆞᆫ 디방에 드러가지 말나 ᄒᆞ엿고, 분슈를 직히면 몸에 욕이 업다 ᄒᆞ엿스니, 뎌갓치 졸디에 남의 부귀를 탐ᄂᆡ고야 나종 ᄌᆡ앙이 ᄌᆡ 엇지 업슬쇼냐? 고기ᄇᆡᄉᆞᄃᆡᆨ이에 쟝ᄉᆞ지기가 아마 십상 팔구이지."[55]

수수께끼는 문답식 언어유희의 하나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닌, 두 사람의 대화가 맞물리면서 언어적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문답식 언어유희는 대체로 사건의 전개 상황과는 관련이 없고 말장난식의 대화가 이어지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 종류로는 의미 그대로의 수수께끼의 형태를 보이는 것과 인물 간의 대화 사이에서 말장난식의 문답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다.

"또 안다안다 하니 안진 고리, 선고리, 쒸는 고리, 입는 고리가 무어시냐?"
"그런 수수씻끼도 인나? 나는 모르것소."
"내 일음 들어보소. 안진 고리 동고리, 선고리 문고리, 쒸는 고리 개고리, 입는 고리 저고리지. 그거슬 몰나. 인제 너 젓지? 무슨 핑계 하려느냐?"
"도련님 내 할 거시니 알아내오."
"어서 하여라."
"어서 하거라."
"도련님 안다안다 하니 손임 보고 먼저 인사하는 개가 무어시오?"
"개지 무어시냐?"
"또 안다안다 하시니 서모 파는 장사가 무어시오?"
"셰상의 그런 장사 또 잇나? 나 모르겟다."
"얼어미 장사을 몰나요?"
"올커니 참 그러코나."
"또 안다안다 하니 나는 개, 차는 개, 미는 개, 치는 개가 무어시오?"

53) 인권환 역주, 『토끼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p.202.
54) 위의 책, p.210.
55) 위의 책, p.222.

"나 모로겟다."
"나는 개는 소리개, 차는 개는 노리개, 미는 개는 고밀개, 치는 개는 도락개지. 그것도 몰나? 인제 서로 비겻지요."[56]

위의 예문처럼 서사와는 관계 없는 수수께끼 놀음을 통해서 언어적 유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장면에 있는 반면에, 아래의 예문처럼 엉뚱한 선문답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답을 요하는 수수께끼라기보다는 말 잇기 방식의 문답 이어가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소리 다 들으니 무슨 핑계로 말 물으리오. 별안간 딴전으로 하는 말이,
"저 농부 여보시오. 검은 소로 논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한지?"
농부 대답하되,
"그렇기에 볏 달았지요."
"볏 달았으면 응당 더우려니?"
"덥기에 성엣장 달았지요."
"성엣장 달았으면 응당 차지?"
"차기에 소에 양지머리 있지요."[57]

이러한 문답식 수수께끼는 그네를 타는 춘향의 정체를 궁금해 하는 이도령이 방자에게 춘향에 대해 물어보는 정체확인사설에서도 나타나며, 판소리계소설에서 흔히 등장한다. 질문에 엉뚱한 대답이 이어져 독자는 그 자체로 언어적 즐거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긴 수수께끼형 말 잇기를 통해 작품의 호응도를 높이고 독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도 얻고 있다.

2.1.4 삽입가요

삽입가요는 판소리계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섞임의 한 양상이다. 특히, 춘향전

56) 김영동, 앞의 논문, pp.211~212.
57) 이윤석, 『남원고사 원전 비평』, 보고사, 2010, p.281.

의 이본인 『남원고사』에는 그 삽입가요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당시의 유행하던 가사들이 삽입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예양식들이 복합적으로 섞이고 바뀜으로써 탈양식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가사나 잡가가 삽입되고 있는데, 전편이 전부 다 섞이거나, 혹은 내용을 바꾸면서 섞인 것, 또는 이름만을 들고 있는 것 등 그 섞임의 양식이 다양하다. 이 중 내용을 바꾸면서 섞인 형태는 현대 화법의 패러디하기와도 그 맥락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삽입가요는 그 자체로 서사구조에 이바지하기보다는 산문적 우의를 이룩하는 구실에 주로 이바지 하고 있다.[58] 또한 삽입가요는 정서적 분위기를 고조함과 동시에 서사적 사건의 극적 효과를 겨냥한 부연의 방법으로도 쓰인다. 이 경우, 독자들은 정서적 분위기 고조와 함께 흥미를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또 한 왈짜가 어부사(漁父詞) 한다.
> 설빈어옹이 주포간 하니 자언거수승거산을.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조조재락만조래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하니, 의선어부일견고라.
> 청고엽상에 양풍기요 홍료화변백로한을. 닻 띄워라, 닻 띄워라, 동정호리가귀풍을. 지궁총 지궁총 어사와 하니, 범급전산홀후산을.
> 진일범주연리거 하니 유시요도 월중환을. 어어라 어어라, 아심수처자망기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하니, 고세승류무정거라.[59]

<춘향전>에서 춘향이 옥에 갇혔다 죽기 직전, 잔치에 초대된 왈짜 패거리들은 각기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른다. 그 때 삽입된 노래들이 전부 당시에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삽입가요라고 할 수 있겠다. 왈짜타령의 일부분인 위의 <어부가>는 조선조 12가사 중의 하나인데, 실제 춘향전의 서사적 구조와는 관계가 없지만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래로 흥을 돋우고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58) 김태준, 「『남원고사』의 삽입 문예 양식과 그 민중적 성격」, 『한국문화연구』 1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9, p.176.
59) 이윤석, 앞의 책, pp.241~243.

이 몸이 삼기실 제 임을 좇아 삼겨시니 삼생의 연분이며 하늘 마칠 일이로다. 나 하나 소년이요 임 하나 날 괴실 제, 이 몸 이 사랑은 견줄 데 전혀 없다. 평생에 원하오되 한데 예자 하였더니, 그 덧에 어이하여 각재동서 그리는고. 엊그제 임을 뫼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그 덧에 무삼 일로 하계에 내려온고. 올 적에 빗은 머리 흐트런지 오래도다. (중략) 어와 이 내 병이여 이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스러져서 범나비나 되오리라. 꽃 지자 새잎 나자 녹음이 어린 적에 꽃마다 다니다가 임의 옷에 앉으리라. 임은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임을 쫓아다니리라.

이렇듯이 시름으로 무정세월 보내더라.[60]

위의 예문은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이 <춘향전>의 한 이본인 『남원고사』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일부만을 제시했지만, 실제 『남원고사』에는 <사미인곡>이 전문 삽입된 것을 볼 수 있다. 사미인곡이 삽입된 부분은 이도령이 서울로 간 이후, 눈물로 지새우는 춘향의 독백 속에서 나타나는데, 춘향의 신세 한탄을 하는 장면 속에서 춘향의 애타는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정서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장치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2.2 내용요소 활용 방식

판소리계소설에서 나타난 재담들을 분류했을 때, 언어요소 활용 방식이 독자들에게 언어 그 자체로 즐거움을 유발했다면, 내용요소 활용 방식은 그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틀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도중에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그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웃음을 유발하는가 하면 또 인물을 비속화함으로써 열등한 인물에 대한 우월감으로 흥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서술자가 가지는 위치는 크다. 서술자는 작품 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실감나게 상황을 전달하고, 인물을 비꼬며,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전달한다. 여기에서는 언어 외

60) 앞의 책, pp.168~170.

적인 부분, 즉 인물, 혹은 사건과 같은 내용적인 부분에 나타난 재담을 세분화하도록 하겠다.

2.2.1. 서술자의 개입

판소리계소설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자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소설선행이론이든, 판소리선행이론이든지 간에 판소리계소설의 작품들은 문자로 정착되기 이전에 구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형성과정 상의 특징 때문에, 판소리계소설의 문체는 대부분이 구어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친근하게 말을 건네는 구어체적인 특성의 이면에는 등장인물을 비속화하고, 사건을 희극적으로 제시하면서 풍자와 골계를 드러내려는 작가의식이 숨어 있다.

서술자가 구어체로 사건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인물을 희화화하고,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잃고 어느 순간 개입하여 인물의 처지에 공감하거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한다.

> 춘향이가 침금 속으로 달여든다. 도련임 왈칵 조차 들어누어 져고리을 벽겨ᄂᆡ여, 도련임 옷과 모도 한틔다 둘둘 뭉쳐 한편 구셕의 던져두고, 두리 안고 마조 누워슨니 그ᄃᆡ로 잘이가 잇나. 골집 닐졔 삼승이불 춤을 추고, ᄉᆡ별 요강은 장단을 맞추워 쳥그릉 징징, 문고루난 달낭달낭, 등잔불은 가물가물, 마시 잇게 잘자고 낫구나. 그 가온ᄃᆡ 진진한 이리야 오직하랴.[61]

춘향전에서 두 사람의 첫날밤에 관련한 서술을 살펴보면, 서술자가 은근슬쩍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짜로 두 사람의 은밀한 밤을 훔쳐보고 있는 것처럼 의뭉스러운 말투로 정황을 묘사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그대로 잘 리가 있나.', '맛있게 잘 자고 났구나.' 등 직접 서술에 개입함으로써 재미를 더하고 있다.

> "장ᄂᆡ 졍승 하오리다."

61) 설성경 역주, 『춘향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p.76.

사또 너머 감격하야라고,
“졍승이야 엇지 바릐것나마는 ᄂᆡ 싱젼으 급졔는 쉬 하리마는, 급졔만 쉽계 하면 출육이야 베면이 지ᄂᆡ것나.”
“안이요, 그리할 말삼이 안이라 졍승을 못하오면 장승이라도 되지요.”
사또이 호령하되,
“자ᄂᆡ 뉘 말노 알고 ᄃᆡ답을 그리하나?”
“ᄃᆡ답은 하여사오나 뉘 말린지 몰나요.”
글런다고 하여스되 그계 또 다 거짓마리엿다.[62]

이 경우는 교묘하게 서술자가 이 부사를 희롱하는 장면이다. 근엄한 양반의 자식 사랑을 서술자가 목낭청의 입을 통해 비꼰 다음, 서술자가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마무리함으로 인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판소리계소설에서는 유식한 고사나 한시구가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유식한 고사나 한시구는 소리판의 청중들 가운데 양반층에게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하층민에게는 교육적인 기능과 아울러 식자에 대한 선망심리를 불러올 수도 있다.[63]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고사나 작품에 관련된 사설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 서술자의 실수가 곧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부터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

2.2.2. 인물의 비속화

인물의 비속화는 우월 이론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열등한 인물의 묘사나 그의 행동으로 인해, 독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우월감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판소리계소설에서는 인물들의 비속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인물이든, 혹은 부정적인 인물이든 간에 그 행동이나 외양을 묘사함에 있어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

62) 위의 책, pp.56~58.
63) 김종군, 「<열녀춘향수절가>의 구연적 과장 표현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19, 판소리학회, 2005, p.259.
64) 이윤석, 앞의 책, p.44.

책방 수청을 들이되 귀신 다 된 아이놈을 들이것다. 상모를 역력히 뜯어보니, 대가리는 북통 같고, 얼굴은 밀매판 같고, 코는 얼어 죽은 초빈 줄기만 하고, 입은 귀까지 돌아지고, 눈구멍은 총구멍 같으니, 깊든지 말든지, 이 달에 울 일이 있으면 내월 초생에 눈물이 맺혔다가 스무날정께 되어야 낙루하고, 얽든지 말든지 얽은 구멍에 탁주 두 푼어치 부어도 잘 차지 아니하고, 몸집은 동대문 안 인정만 하고, 두 다리는 휘경원 정자작 기둥만 하고, 키는 팔척장신이요, 발은 겨우 개발만 한데, 종아리는 비상 먹은 쥐다리 같으니, 바람이 부는 날이면 간드렁 간드렁 하다가 된통 바람이 부는 날이면 가끔 낙상하는 아이놈을 명색으로 수청을 들이니[64]

위의 예문은 이도령을 위한 책방수청 아이의 외모를 한껏 희화화시키고 있다. 이사또가 아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못생긴 아이를 책방수청으로 들이는데, 그 아이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인 비유와 함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그 모습을 듣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판소리계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위에 설명했던 외양 묘사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도 비속화되고, 희화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춘향전>에서 이도령이라는 인물은 얼굴이나 풍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문장이나 필체 또한 예사롭지 않은 뛰어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완벽한 인물로 등장한 이도령은 자신을 독수공방 시킨다며 부모를 욕하고,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에 눈이 팔려 방자에게 그네 타는 이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통사정을 한다. 이도령의 이러한 호색한 같은 말투와 행위는 양반댁 도령으로서의 위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대상을 비속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흥부전>에서의 흥부 역시, 처음 서술자의 묘사에서 보여줬던 도덕적이고 성실하며 착한 인물이라는 설정과는 달리 집을 짓는 장면이나, 환곡을 타러 갈 때의 행위를 통해 비속화되고 있다.

흥보 할 길 없어 처자를 앞세우고 재넘어 작은 복덕촌으로 들어가서 초막 하나 성조할 새, 수숫대 한 단, 새내끼 한 사리 갖고 근근이 집을 지었으되 어찌 잘 지었던지 일어서면 상투가 천장을 빗질하고 뒷문에 머리를 베고 누워 기지개 한번만 서면 머리가 뒷골목에 언 듯 나서는구나[65]

65) 김진영· 김현주 역주,『흥보전』, 박이정, 1997, pp.175~177.

흥부가 집을 짓는 것을 보면, 흥부는 사람이 거처하기에 알맞은 집을 정성스럽게 짓는 것이 아니고 수숫대 반짐으로 한나절만에 짓기를 마치고 만다. 이는 흥부의 나태함, 무능,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소극성을 나타낸 것이다.[66] 또한 곡식을 얻기 위해 놀보에게 찾아가려고 의관을 찾는 모습은, 허례허식에 집착하는 흥보의 비속화를 보여주고 있다.

> 흥보 마지 못ᄒᆞ야 말을 ᄒᆞ되 그러ᄒᆞ면 ᄂᆡ의 의관 ᄂᆡ여 오쇼 ᄃᆡ답ᄒᆞ되 어ᄃᆡ 잇쇼 흥보 ᄎᆡᆨ망ᄒᆞ난 말이 가모ᄀᆞ 가장의 관건 둔 ᄃᆡ을 몰ᄂᆞ 눈머럭ᄃᆡ로고 국상적의 빅입ᄒᆞᄂᆞ 어더 썻더니 셩세 업셔 칠 못ᄒᆞ고 연기로 경굴야고 굴쑥 속에 너허 두릿지 동굴이 안의 이ᄂᆡ 도복이며 덕셕 군역의 이ᄂᆡ 죠ᄃᆡᄉᆡ지 ᄂᆡ여오게 흥보의 거동보쇼 의관치레 볼작씨면 모ᄌᆞ 업ᄂᆞᆫ 흔 팔입의 버레쥴로 칭칭 ᄆᆡ여 노갓ᄁᆞᆫ 달아씨고 편ᄌᆞ 터진 흔 망근의 물네쥴노 당쥴 다러 ᄃᆡ구리 터지게 쫄ᄂᆞ ᄆᆡ고 다 쩌러진 흔 졉바지 삼베 고의 밧쳐 입고 짓만 나문 흔 져고리 뒤덕뒤덕 지여 입고 ᄌᆞ락 업난 즁츄ᄆᆡᆨ이 열두 도막 이신 씌을 흉복통의 질ᄁᆞᆫ 눌너 시장찬케 쫄ᄂᆞᄆᆡ고 셔리 앗침 츄운 날의 팔장씨고 발버슨 ᄎᆡ 벌네벌네 근네ᄀᆞ셔 ᄉᆞ랑문을 열고 보니 엇지 무셥던지[67]

위의 예처럼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첫머리에 서술자가 소개했던 바와는 모순되는 행동들을 통해 인물을 비속화시키고, 희화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긍정적인 인물들뿐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군을 묘사할 때에는 인물의 비속화가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놀보의 경우 외양 묘사부터 심술궂게 묘사되어 있는데, 외양만큼이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동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표리부동한 놀부의 언행에 대해 독자들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의 어설픈 짓거리를 보고, 열등한 인물에 대해서 웃는 웃음, 즉 자기 우위를 인정함에서 오는 웃음을 짓게 된다.[68]

> 흥보 기가 막켜 형임 이게 웬 말이요 말슴ᄒᆞᆺ게 드러보오 ᄎᆞᄎᆞ 시죵으로 셩세 일운 ᄂᆡ력을 죵두지미로 낫낫치 말슴ᄒᆞ니 놀보ᄀᆞ 이 말를 듯고 여바라 이 말 가맘 가맘 ᄒᆞ여라 져 울묵의 져것 무엇시냐 그것 화쵸장이요 야 그것 날다고 화쵸장을 어더 집고

66) 남명희, 「흥부전에 나타난 골계의 양상과 기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p.31.
67) 김진영· 김현주 역주, 앞의 책, pp.178~180.
68) 남명희, 앞의 논문, pp.35~36.

죠와라구 외이것다 화쵸장 화쵸장 또랑을 건네뛰다 화쵸장 일옴을 깜막 일코 모도 뒤붓쳐 빈장화 쵸장화 아무리 싱각ᄒᆞ여도 알 슈 업셔 져의 집을 드러가니 놀보 안ᄋᆡ 썩 나셔셔 그것 무웟시오 아무 것시면 너는 몰나셔 문난야 나는 몰오것쇼 그년이 번연이 알면셔 ᄂᆡ 속을 몰ᄂᆞ꼬 몰은다고 그리 셩가시게 ᄒᆞ난고 나 어ᄃᆡ 봅세 얼슝 얼슝ᄒᆞ니 이것 얼슝장이요 올치 올치 얼슝장이라 ᄒᆞ데[69]

이런 놀부의 행위를 통해 놀부라는 인물을 비속화 하고 희화화함으로써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인물의 비속화는 <흥부전>뿐만 아니라 다른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또한 인물을 비속화하는 방법으로는 보조 인물을 등장시켜 등장한 인물을 비판하고 해학적인 인물로 만드는 경우이다. 이러한 인물을 '방자형 인물'이라고 한다.

'심봉사 잠들기를 기달여 ᄂᆡ쎄리라.'

ᄒᆞ고 고동목을 노코 누엇더니 심봉사 잠을 집피 드러거늘 두 말 업시 도망ᄒᆞ여 다러난지라. 이ᄯᆡ의 심봉사 잠을 ᄭᆡ여 음흉ᄒᆞᆫ 싱각이 잇셔 엽을 만져보니 쎙덕어미 업거날 손질을 ᄂᆡ미러 보며,

"여보소 쎙덕이네 어ᄃᆡ 갓난가?"

종시 동졍이 업고 웃묵 구셕의 고초 셤이 되야 쥐란 놈이 바시락 바시락ᄒᆞ니 쎙덕어미가 작난ᄒᆞ난 줄만 알고 심봉사 두 손을 썩 벌이고 이러셔며,

"날다러 기여 오란가."

ᄒᆞ며 더듬더듬 더듬으니 쥐란 놈이 놀ᄂᆡ여 다라나니 심봉사 허허 우수면셔,

"이것 요리 간다."

ᄒᆞ고 이구셕 저구셕 두로 조차 단이다가 쥐가 영영 다라나고 업거날, 심봉사 가만이 안져 싱각ᄒᆞ니 헛분 마음 갓업시 속아또다.[70]

춘향전의 '방자'나 심청전의 '뺑덕어멈' 같은 인물이 바로 방자형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자형 인물들은 등장인물을 희화화시킴으로 웃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태도를 비판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위에 제시된 장면은 뺑덕어멈이 잠든 심봉사를 버리고 도망간 뒤, 그를 찾는 심봉사의 모습을 희화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69) 김진영· 김현주 역주, 위의 책, pp.254~256.
70) 정하영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pp.232~233.

2.2.3. 긴장감 조성과 완화

비예측성은 웃음 유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대 유머 이론 중에서 유머 구조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봤을 때, 유머의 구조는 '구조 만들기-급소 찌르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야기의 토대를 만들고 수용자의 기대치를 높인 다음에, 급소 찌르기의 방식을 통해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웃음이 유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어느 위대하다고 하는 대상이 나타날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대상이 허무에 돌아가고 긴장이 이완한 결과 우리는 골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1] 독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그 긴장이 이완되면서 웃음이 유발된다고 보는 것이다. 판소리계소설에서도 사건의 진행 상황 속에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토끼전>의 결말 부분에서 자신의 간 대신 똥을 자라에게 주며 용왕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는 토끼의 모습을 보며 독자들은 결말에 대한 기대심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용왕의 병이 토끼의 똥을 먹고 깨끗하게 낫는 부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웃게 된다.

<흥부전>에서의 놀부가 박을 타는 장면 역시 기대감을 증폭시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 기대가 무너지는 효과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놀부의 박타령은 흥부처럼 재물이나 쌀과 같은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지만 초라니패, 장비, 병신들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놀부를 벌한다. 이 과정에서 긴장감이 완화되어 사람들이 웃음 짓게 되는 것이다.

<춘향전>에서도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목숨을 잃게 될 춘향의 처지에 독자들은 깊이 공감하게 되고, 그를 통해 극적 긴장감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사가 된 이도령이 등장하면서 그 긴장이 완화되고, 독자들은 안도감과 함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

71) 남명희, 앞의 논문, p.39.

2.2.4. 금기의 일탈

금기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암묵적으로 접근하지 않거나 피하기로 약속된 것을 말한다. 금기 속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리는 비속어나 육담과 같은 것들이 속하는데, 비속어나 육담이 언어 그 자체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나 대화의 문맥 상황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웃음을 유발하는 재담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용적인 요소로 분류하였다.

사회적으로 발설하면 안 되는 금기를 듣거나 읽음으로써 수용자들은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육담, 즉 음담의 경우는 은밀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남의 은밀한 내용을 훔쳐 보는 것과 같은 일탈에의 즐거움을 주며, 비속어의 경우는 인물의 대화 상황 가운데 끼어들어 그 상황 자체를 희화화 시키거나 혹은 인물의 말 속에서 그가 느끼는 감정을 적나라하게 풀어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해소의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비속어는 판소리계소설이 서민들이 향유했던 문화적 양식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현 양식이다. 비속어를 말함으로써 사람들은 억눌려 있는 욕구를 분출하며, 또는 욕설이 나타난 장면들을 통해 금기시된 것들의 배설로 인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속어는 판소리계소설에 자주 등장하며, 인물의 대화 속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 이 ᄀᆡ 워리워리 아무리 달ᄂᆡ여도 무중 즁강아지란 놈니 더 들친니 놀부 질ᄉᆡᆨ하야 이 네미 씹할 즁강아지 ᄂᆡ가 네 어미 죽인 원슈야 엇지 ᄂᆡ게 그리 야쇽키 짓난야[72]

> 또 한 통을 싸려할제 놀보 아ᄂᆡ 일른 말리 제발 덕분 타지 마쇼 놀보 홰을 ᄂᆡ야 쑤지져 욕을 하되 제어미 씹할 연 죵도 모로고 모이라도 명당을 으드면 쵸연ᄭᆡ가 잇난니라 ᄀᆡ아들 제집연니 밀어 닙써 말ᄒᆞ난니 뒤을 ᄌᆞ시의 보면 포물의 뭇치리라 잡말 말고 어셔 타ᄌᆞ[73]

72) 김진영· 차충환· 김동건 교주, 앞의 책, p.376.

위의 장면은 각각 놀보가 자신을 보고 짖는 강아지와 박을 타지 못하게 하는 아내에게 욕을 하는 장면이다. 놀보의 성격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머니를 놓고 적나라하게 욕을 하는 비속어의 등장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보다는 놀부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구어체적인 표현이 가지는 특성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런 비속어의 사용으로 인해 독자는 인물에 대한 친근감과 재미를 느끼게 된다.

> "이 골 춘향니가 본관의 수체 드러 뇌물을 만이 바더 묵고 민정의 작폐한단 말이 올흔지?"
> 져 농부 열을 ᄂᆡ여,
> "게가 어ᄃᆡ 삽나?"
> "아무ᄃᆡ 사든지."
> "아무ᄃᆡ 사든지란이? 게난 눈콩알 귀ᄭᆞᆼ알리 없나? 지금 춘향이를 수청 아니든다 하고 형장 맛고 갓쳐쓰니, 창가의 그런 열여 셰상의 드문지라. 옥결 갓튼 춘향 몸의 자ᄂᆡ 갓턴 동낭치가 누셜을 시치다는 빌어먹도 못ᄒᆞ고 굴머 뒤여지리! 올나간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그 놈의 가식은 일거후 무소식하니 인사가 그러코는 벼살은 컨이와 ᄂᆡ 좃도 못하졔![74]"

위의 예문은 이도령이 어사로 부임하여 남원으로 내려오던 길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농부와 나눈 대화이다. 욕설을 내뱉는 대상이 이도령인지 모르고 면전에 대고 적나라한 욕설을 내뱉는 농부와의 대화에서 역시, 독자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육담은 음담과 같은 야비한 이야기, 품격이 낮은 말 등의 의미로 외설적인 말, 욕설 등이 속한다.[75] 이것은 문체의 격하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육담이 대화상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육담을 내뱉는 인물에 대한 비속화로 연결 지을 수 있다. 육담을 통해서 사람들은 금기를 내뱉는다는 쾌감을 느낌과 동시에 인물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는 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

73) 위의 책, p.438.
74) 설성경 역주, 「열녀춘향수절가」, 『한국고전문학전집』 1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p.178.
75) 이명진, 「판소리 사설의 골계미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65.
76) 설성경 역주, 앞의 책, p.84

"네 드러보와라! 조흔 마리 만한이라. 조분 쳔지 기틱궁, 뇌셩벽역 풍우속의 셔기삼광 풀여 잇난 염장하다 창합궁, 셩덕이너부시사 조림이 어인일고. 쥬지긱 운셩하던 은왏의 딕졍궁, 진씨황 아방궁, 문쳔하득 하실 젹기 한틔조 할양궁, 그 져틔 장낙궁, 반쳡여의 장신궁,ㅡ 당명황졔 상춘궁, 이리 올나 이궁, 져리 올냐셔 벽궁, 용궁 속의 수졍궁, 월궁 속의 광한궁, 너와 나와 합궁하니 한평싱 무궁이라. 이 궁 져 궁 다 바리고 네 양각 시 슈룡궁의 ᄂᆡ으 심쥴 방망치로 질을 ᄂᆡ자구나!"[76]

도련임 츈항 오슬 벽기려 할 졔, 넘놀면셔 어룬다. 만쳡 쳥산 늘근 범이 살진 암 키를 무러다노코 이는 업셔 먹든 못하고 흐르릉 흐르릉 아웅 어루난 듯, 북히 흑용이 여의쥬를 입으다 물고 치운간의 늠노난 듯, 단산 봉황이 죽실 물고 오동 속으 늠노난 듯, 구구 쳥학이 난초을 물고셔 오송간의 늠노난 듯, 춘향의 가는 허리를 후리쳐 다담숙 안고 지지기 아드득 썰며, 귀쌥도 쪽쪽 쌀며, 입셔리도 쪽쪽 쌀면셔, 주홍갓턴 셔를 물고 오식단청 순금장안의 쌍거쌍ᄂᆡ 비들키갓치, 씅씅 씅씅 으흥거려 뒤로 돌여, 담쑥 안고 져셜쥐고 발발 썰며 져고리, 초ᄆᆡ 바지, 속것까지 활신 벽겨노니, 춘향이 북그려워…[77]

위의 예문은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춘향에게 수작을 거는 부분으로 적나라한 장면 묘사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여기에 서술자의 천연덕스러운 개입이 더해지면서 은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내부에서 금기시 되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평이한 서술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실에서 억눌려 있던 은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배설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재담은 판소리계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며, 이런 금기의 일탈을 통해 등장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비속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77) 위의 책, p.86.

Ⅳ. 판소리계소설의 재담 교수-학습 방안

1. 개정교육과정의 내용과 재담교육

1.1 개정교육과정의 내용과 체계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기존의 7차 교육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굳이 8차 교육과정이 아닌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그 특징을 살펴볼 때,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특징과 체계를 검토하겠다.

개정 교육과정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중심의 국어 교육을 지향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개별적·독립적·탈맥락적인 지식, 기능의 학습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고 보고, 교육 내용을 '실제'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78] 이것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텍스트 중심으로 개별적인 학습을 통해 '실제'보다는 기능적인 면에 치중했던 것을 생산 중심의 활동적인 교육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여겨진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과,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텍스트와 문학 수업 간의 연계를 연구했던 기존의 이론들과도 연결된다. 문학 텍스트를 문학 텍스트로서만 지도하고, 실제 학습자에게 연계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관련성과 통합성의 강조는 담화와 글을 수용하는 데 있어 포괄적으

78)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11.

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을 지향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규정하는 주체를 국가가 아닌 단위 학교로 설정하였다.[79] 이는 학습자의 수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에게 그 수준별 수업의 권한을 교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였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개정 교육과정이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다. 상황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으로 언어 행위 주체,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으로 역사적·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 신념 등을 포함한다.[80] 교육과정 속에서 맥락을 강조한다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를 확대해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학년 내 영역 간의 연계성을 담화와 글의 차원에서 강화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의 강화는 학습자들을 점진적으로 교육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성의 강화를 중점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였으며, 이러한 성취 기준을 학습하기 위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언어 사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매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매체를 통해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79) 위의 책, p.12.
80) 위의 책, p.12.

개정교육과정은 7차와 마찬가지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단일한 내용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국어과의 영역 역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6개 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영역은 국어 능력의 신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어 교육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는 활동보다는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실제적인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맥락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여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 지식과 기능의 쓰임이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재담 관련 성취 기준은 7학년의 듣기 영역과 9학년의 말하기 영역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2> 듣기 영역의 내용 체계

듣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말 듣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말 듣기	- 설득하는 말 듣기 - 정서 표현의 말 듣기
지 식	기 능
◦ 소통의 본질 ◦ 담화 특성 ◦ 매체 특성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맥 락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표3> 말하기 영역의 내용 체계

듣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말 하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말 하기	- 설득하는 말 하기 - 정서 표현의 말 하기

지 식	기 능
◦ 소통의 본질 ◦ 담화 특성 ◦ 매체 특성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과 전달
맥 락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위의 표에서 실제는 담화와 글의 실제적인 생산 활동을 말한다. 실제 범주를 구성하는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은 언어 활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는데, 하위 요소로 지식, 기능, 맥락을 규정하고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학년별 내용에 제시한 성취 기준 중에서 내용 요소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요소는 학습자의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

1.2 개정교육과정 내의 재담 교육

개정 교육과정 내의 재담 관련 성취기준은 7학년과 9학년에서,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서 나타난다. ‘재담’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취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괄목할만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재담’은 그 분명한 용어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채로 ‘재미있는 말’ 혹은 ‘웃음을 유발하는 말’, ‘재미있는 이야기’ 등으로 제시되었으며, 독립된 하나의 성취기준이 아니라 다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재담이 성취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재담’ 자체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재담에 관한 성취 기준은 7학년과 9학년에 제시되어 있다. 8학년에는 재담 관련 내용이나 성취기준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인 ‘연계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1.2.1 7학년 성취 기준

【7-듣-(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이 성취 기준은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사고력과 상상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81] 여기에 제시된 학습해야 할 내용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재담에서 재미를 주는 요소, 즉 발상과 의미 측면에서 재담을 분석하여 무엇이 웃음의 동력이었는지를 분석하게 하는 것과 재미있는 말은 즐거움 제공과 비판이라는 양면적 성질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재미있는 말을 들을 때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제시된 담화의 수준과 범위로는 '재치와 유머가 있는 재담'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대화 중 재담의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대중매체인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온 재담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된 대상인 '일상 언어 활동에서의 재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글들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신에 보조적 자료로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재담 교육에 활용하도록 한 것은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매체 활용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7학년의 성취 기준은 6학년의 읽기 영역 성취 기준인 "(4) 웃음을 유발하는 글을 읽고 표현의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느낀다."를 제시하며 학교급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81)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28.

1.2.2 9학년 성취 기준

【9-말-(4)】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해학의 구조와 표현 특징 이해하기

◦ 우리나라 해학 문화의 전통 이해하기

◦ 전통 해학을 재담에 활용하기

재담 관련 성취 기준은 7학년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학습자가 학습한 이후에 8학년에서는 재담을 다루지 않고 9학년에 다시 학습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년 간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9학년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7학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담화의 구체적인 예가 9학년의 담화 수준과 범위에서 제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학년의 담화 수준과 범위에서는 해학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재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예로 민담, 설화, 고소설, 판소리, 탈놀이 등에 사용된 재담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7학년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확대하여 해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작품들에서 찾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성취기준은 웃음을 유발하는 말 하기를 통하여 대인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우리의 언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82] 이때, 해학과 재담을 이해하는 지식 전달식의 수업이 아니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재담은 단순히 이야기의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이야기에 몰입하고 웃음을 터트릴 수 있도록 실감나게 전달해야 하므로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83] 이런 종합적인 학습 내용을 통해서 재미있게 말하는 방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말하기 학습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

82)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84.
83) 위의 책, p.85.

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수록 판소리계소설 양상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교과서는 기존의 국가 주도인 국정교과서에서 벗어나 검정교과서를 각 일선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7차 개정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로 바뀌게 된 까닭은 특히 7차 이후 강조되어 왔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적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010년에 7학년이 적용되고 2011년에 8학년, 그리고 2012년에 9학년의 차례로 교과서가 적용되고 있다. 2011년 현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검정 교과서는 7학년이 23종, 8학년이 15종이며 9학년의 경우는 2012년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현재 검정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7학년과 8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교과서에 실린 판소리계소설 제재들을 성취기준별로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1.1. 7학년 교과서

<표4> 7학년 교과서 성취 기준별 목록표

7-듣-(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유웨이중앙교육	이숙 외	1. 웃음을 찾아서	심청가	2학기 국어
미래엔컬쳐그룹	윤여탁 외	3. 재미있는 우리말	흥보가	2학기 국어
천재교육	박영목 외	5. 선인들의 삶과 언어	밥타령(흥보가)	2학기 국어
천재교육	김대행 외	1. 말의 묘미	흥보가	1학기 생국
교학사	남미영 외	4. 재미있는 우리말	흥부전	2학기 생국
디딤돌	김종철 외	2. 역사와 이야기	박타령 (흥보가)	2학기 국어

디딤돌	김종철 외	2. 역사와 이야기	흥부전	2학기 생국
지학사	방민호 외	2. 우리말의 세계	흥부전	2학기 국어

7-문법-(1) 관용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교학사	남미영 외	2. 매체는 생각을 실어 나르는 수레	흥부전	2학기 국어

7-문법-(2) 관용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미래엔컬쳐	이남호 외	1. 읽기의 즐거움	춘향전	2학기 국어
디딤돌	이상형 외	3. 의도와 표현	토끼전	2학기 국어
해냄에듀	오세영 외	2. 아름다운 우리말	춘향전, 토끼전	2학기 생국
교학사	남미영 외	4. 재미있는 우리말	흥부전	2학기 생국

7-문법-(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미래엔컬쳐	이남호 외	6. 상황에 따른 표현	토끼전	2학기 국어

7-문학-(1)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해결 과정을 파악한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비유와 상징	조동길 외	5.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삶	흥부전	1학기 국어
새롬교육	권영민 외	2. 작품 속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심봉사(채만식)	2학기 국어

7-문학-(3) 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창비	김상욱 외	5. 소설과 영화는 이웃사촌	춘향전	2학기 국어
디딤돌	김종철 외	2. 역사와 이야기	흥부전	2학기 생국

7-읽-(1) 읽기의 개념, 특성, 원리, 방법을 안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두산동아	우한용 외	2. 깨닫는 삶, 나누는 삶	수궁가	1학기 국어

7-읽-(5)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창비	김상욱 외	5. 소설과 영화는 이웃사촌	춘향전	2학기 국어

7-말-(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비유와 상징	조동길	2. 같게 또 다르게	토끼전	2학기 생국

7-말-(4)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화를 나눈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미래엔컬쳐	이남호 외	6. 상황에 따른 표현	토끼전	2학기 국어

7학년의 경우, 판소리계소설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판소리 문학들이 제재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어와 생활국어 23종의 교과서 중 14종에서 각기 판소리계소설 혹은 판소리 문학을 제재로 삼고 있다. 성취 기준 별로 보자면, '듣기, 문법, 문학, 말하기, 읽기'의 다섯 영역에 대체로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 목표와 직결되는 본문 제재가 아니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부분에 판소리 제재가 수록 되거나, 혹은 단원 시작 부분에 동기유발의 형태를 띠고 삽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단원의 마무리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종합 지문으로 수록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판소리계소설이 다양한 형태로 교과서에 수록되는 것은 판소리계소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친근함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서민문학이라는 점, 서민문학의 특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풍자, 해학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 그리고 판소리라는 장르적인 특성을 판소리계소설이 일부 가지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에 제시된 교과서 단원들의 학습 목표를 봤을 때 어느 한 가지로 통일되는 면 보다는 다양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취 기준을 기본으로 한 학습 목표 이외에도 판소리계소설을 통해 전통성을 학습하는 활동을 통해 기존의 목표를 확장시키는 형태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후에 나오는 7학년과 8학년의 성취 기준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84]

성취 기준 중에서 다른 기준들보다 재담 관련 성취 기준에 판소리계소설이 제재로 선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판소리계소설이 재담 교육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담 관련 성취 기준에 제시된 판소리계소설을 통한 학습은 대체로 재담의 표현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풍자와 연관 시켜 재담이 가지고 있는 골계적 특성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으며, 사회상을 파악하는 활동도 기본 내용 이해의 확장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재담 교육 이외에도 우리말의 관용적 표현을 학습하는 성취 기준에 판소리계소설이 제재로 선정되었는데, 그 까닭은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수사 기교들 중에서도 속담이나 관용적 표현들이 다수 나타나는 구어체적 표현 방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검정 교과서에 실린 판소리계 텍스트의 경우, 대부분이 <토끼전>, <춘향전>, <흥부전>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판소리계 텍스트는 판소리, 판소리 사설, 판소리계소설로 세분화가 가능하고 또한 판소리계소설의 종류 역시 다양하다. 천재교육의 노미숙 교과서에 실린 <장끼전>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위에 언급한 세 작품만이 제재글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제재글을 사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적벽가>나 <배비장전>, <숙향전>과 같이 학생들이 이름 이외에 내용을 접하기 힘든 다른 판소리계소설 작

84) (주)유웨이중앙교육의 1-2 국어 교과서에서는 활동인 생각 더하기에 수록된 '심청가'를 통해 옛이야기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학습자들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품들도 제재글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1.2 8학년 교과서

<표5> 8학년 교과서 성취 기준별 목록표

8-문학(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교학사	남미영 외	3. 인물 속에 스며든 사회와 문화	홍보가	2학기 국어
지학사	방민호 외	1. 열린 시각, 다양한 이해	춘향전	2학기 국어
지학사	방민호 외	5. 우리가 사는 세상	심청전	2학기 생국
새롬교육	권영민 외	4. 왜 이렇게 해석될까	흥부전	1학기 생국
천재교육	노미숙 외	5. 문학, 상상의 세계	장끼전	1학기 생국

8-문학-(3) 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파악한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교학사	남미영 외	1. 문학 속의 말하는 이	토끼전	2학기 국어
미래엔컬쳐	윤여탁 외	1. 말하는 이와의 만남	장흥보전	2학기 생국

8-읽-(5) 다양한 풍자물의 매체 특성과 그 효과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교학사	남미영 외	1. 문학 속의 말하는 이	토끼전	2학기 국어
지학사	방민호 외	3. 표현과 매체	토끼전	2학기 국어

8-문법-(5)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

출판사	저자	단원명	수록작품	비고
지학사	방민호	1. 열린 시각, 다양한 이해	춘향전	2학기 국어

앞서 살펴보았던 7학년에 비해 8학년의 교과서에서는 판소리계소설이 제재로 실린 교과서가 많지 않다. 검정 교과서 15종 중에서 5종에서만 판소리계 작품들이 실리고 있는데, 8학년의 성취 기준들 중에서는 재담이나 관용처럼 판소리계소설에서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학습할만한 기준들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7학년의 성취기준과 9학년의 성취 기준에서 나타나는 '재담' 관련 기준이 8학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8학년의 경우에는 판소리계소설의 문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 제재로 선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취 기준 '8-문학-(3)'처럼 작품 속의 서술자에 대한 학습을 할 때 판소리계소설이 가지는 형성 과정상의 특징이나, 혹은 이면적 주제가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판소리계소설은 그 형성 과정이 구전(口傳)되다 문자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나 혹은 구어체적 표현 속에 서술자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작품 속의 서술자에 대해 인식하고 서술자의 시각에 따라 텍스트가 전달하는 내용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에 판소리계소설은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8-읽-(5)와 같은 성취 기준에 따라 풍자의 의미에 대해 인식하고 판소리계소설이 갖는 풍자적 의미와 풍자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학습자가 이해함으로써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연계성과 통합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8학년의 경우에도 7학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작품들 중 몇몇 작품들에만 치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9학년의 교과서는 검정중인 관계로 판소리계소설이 9학년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실렸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9학년에 재담 관련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우리나라 전통 해학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판소리계소설 작품으로 단원 구성이 이루어지는 교과서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3. 판소리계소설 텍스트를 통한 재담교육의 실제

3.1. 해학과 전통성의 이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학년과 9학년에 재담에 관한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가 제시된다. 7학년에서는 재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고 웃음 유발 요소를 파악한 뒤 적절하게 반응하며 들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9학년에서는 이 재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전통 해학 문화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학 작품에서 '해학'의 요소는 잘 드러난다. 판소리계소설뿐만 아니라 탈놀이, 광대꾼의 줄타기나 무가에서도 해학적인 요소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학이 문학 작품에서 잘 나타나는 까닭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웃음으로 이겨내려는 하나의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해학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작품 속의 '재담'이다. 재담을 통해 나타나는 웃음의 유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웃음의 일반적 공식이라 할 수 있는 열등한 것, 비소한 것, 하찮은 것 등에서 유발되는 웃음이다.[85] 이런 웃음은 무지하거나 열등한 인물들을 통해서나 혹은 그들이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조성된 눈물겨운 상황을 정반대로 뒤집어 유발되는 웃음이 있다.[86] 우리 문학 작품에서 해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까닭도 후자의 웃음과 관련이 있다. 당대의 현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서민들은 눈물 대신 웃음으로 현실 상황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다. 이런 해학의 정신은 우리 전통 서민 문화에서는 빠트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한 자세는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다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87]

---

85)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와 국문학」, 『어문논총』 39, 한국문화언어학회, 2003, p.72.
86) 위의 논문, p.74.
87) 위의 논문, p.87.

문학에서 나타난 해학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재담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 문화와 연계해서 우리 민족성에 대한 이해를 습득할 수 있게 만들 뿐 아니라, 문학 작품이 형성된 당시의 시대상황을 인식하고, 조상들의 사회 대응 자세를 배우게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현실 대응 방식 중의 하나로 재담에 나타난 해학을 통해 풍자와 골계와 같은 비판정신을 습득하게 되며, 이를 현대의 일상 담화 속의 맥락와 연결시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담을 교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2. 판소리계소설 텍스트의 수업 적용

3.2.1. 7학년

7학년의 경우, 재담 관련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학습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7학년 교과서의 대부분이 재담 관련 성취 기준뿐만 아니라 재담을 통한 관용어의 학습, 또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효용에까지 확장시켜 단원 구성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담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사회 비판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또한 사회상에 대한 비판의 기능으로 재담이 사용되었음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담 관련 단원 수업은 총 3차시로 구성했으며,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교수 모형을 적용하였다. 1차시에서는 재담의 의미와 웃음 유발 요소에 대해 직접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 교수법은 7차뿐만 아니라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국어과 교수 모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교사의 역할이 다른 모형에 비해 크고 학습자로 하여금 능동적이지 못하고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

1차시는 재담의 정의 및 웃음 유발 요소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직접 교수법을 활용하였으며, 재담 관련 수업이 일방적인 교사 위주의 수업이 되지

않도록 2차시와 3차시에는 학생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창의력 개발 모형과 역할놀이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때 재담 관련 활동지는 판소리계소설을 제재로 사용하였으며, 판소리계소설을 제재로 하여 재담의 웃음 유발 요소를 확인하고 시대상과 관련하여 재담으로 사회 비판의 기능을 하였음을 추론해낼 수 있도록 지도한 뒤, 역할놀이를 통해 재담을 적절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배치했다. 재담이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정의를 감안했을 때 어떤 이야기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수업에서 모둠 학습이나 활동지를 제시할 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학습자의 지식의 정도나 감정 상태, 또는 생활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의하는 원활한 모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7학년 1차시>

지도일시	2011년 4월 1일	대상	1-1반(35명)	장소	1-1 교실	시간 계획	45분
교 사	박 현 정	차시	1/3	수업조직	모둠별 학습		
대단원				학습자료	교과서, 학습지, 노트북 프로젝션 TV, PPT		
소단원							
학습목표	1.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 재미있는 말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						

과정	지도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8´)	상호 인사 및 출석 확인	· 상호인사 및 학습 환경을 정비한다. · 출석을 확인한다.	· 수업태도를 갖춘다.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선행 학습 및 과제 확인	· 선행학습 했던 내용을 질문하여 요약 정리한다.	· 선행 학습 내용을 떠올리며 내용을 확인한다.	- PPT 자료 활용

		- 초등학교 6학년때 배웠던 읽기 영역의 자료를 제시하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 과제를 확인한다.	· 과제: 교과서 텍스트 읽기	
	학습 동기 유발	· 개그콘서트의 '두분 토론' 코너를 시청한다. -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에는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영상을 보면서 이 코너가 재미있는 까닭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 영상 자료
	학습 목표 제시	· 본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 목표를 따라 읽으며 본시에 배울 내용에 대해 생각해본다.	-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 판서
전개 전개 (30´)	설명하기	· 재담의 정의와 표현에 대해 설명한다.	·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한 내용은 정리한다.	- 판서
	시범보이기	· 재담의 예문을 들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담이 웃음을 유발하는지를 찾도록 시범 보인다.	· 교사가 시범 보이는 활동을 주의 깊게 보며 확인한다. 재담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안다.	- ppt 자료
	질문하기	· 질문을 통해 가르치고자 한 내용을 학생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질문한다.	- ppt 활용
		1. 어떤 이야기를 재담이라고 하는가? - 듣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의도성을 가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2. 재담에서 재미를 주는 표현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반복되는 표현, 비유, 과장, 반어 등이 있습니다.		

	모둠학습	· 모둠별로 활동지를 푼다. · 조장이 모둠 활동지를 발표한다. ·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난 뒤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보충설명 한다.	· 모둠별로 활동지에 제시 된 지문을 읽고 웃음 유발 요소를 찾아낸다. · 자신의 모둠 활동 학습지와 비교해가며 주의 깊게 듣는다. · 답안과 비교하여 모둠의 결과물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 활동지 배부
정 리 (7′)	학습정리 및 학습목표 재확인	· 본시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 재담의 정의와 재담에 나타난 웃음 유발 요소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문점은 질문한다.	- PPT 자료
	형성평가	·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학습 내용을 <형성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 본시 수업을 상기하며 <형성평가>지를 해결한다. · 정답을 통해 자신의 성취수준을 파악한다. - 평가 기준 2문제 이상 해결 : 상 1문제 이하 해결 : 하	-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의 이해를 점검한다. - 형성평가지 자료
	차시 예고 및 과제제시	· 차시 예고 및 과제를 제시한다. - 판소리계소설에 관해 조사 해오기	· 차시 수업 내용과 과제를 확인한다.	

<7학년 2차시>

지도일시	2011년 4월 3일	대상	1-1반(35명)	장소	1-1 교실	시간계획	45분
교 사	박 현 정	차시	2/3	수업조직	모둠별 학습		

대단원		학습자료	교과서, 학습지, 노트북 프로젝션 TV, PPT
소단원			
학습목표	1. 재미있는 말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2. 작품에 나타난 시대 상황과 오늘날의 현실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		

과정	지도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 입 (8´)	상호 인사 및 출석 확인	· 상호인사 및 학습 환경을 정비한다. · 출석을 확인한다.	· 수업태도를 갖춘다.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선행 학습 및 과제 확인	· 선행학습 했던 내용을 질문하여 요약 정리한다. - 지난 시간에 배운 재담의 의미와 표현 방법에 대해 되짚는다. · 과제를 확인한다.	· 선행 학습 내용을 떠올리며 내용을 확인한다. · 과제: 판소리계소설에 대한 정보 알아오기	- PPT 자료 활용 - 과제 발표
	학습 동기 유발	· 컬트 트리플의 '눈썹 어딨니'라는 노래를 들려준다. - 이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른 노래와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전달하려는 의미를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음악 자료
	학습 목표 제시	· 본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 목표를 따라 읽으며 본시에 배울 내용에 대해 생각해본다.	-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 판서
전	문제 발견하기	· 활동지를 제시하고,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활동지를 꼼꼼히 읽고, 나타난 사회상에 대해 정리해 본다.	- 활동지

개 전 개 (30′)		- 활동지에 제시된 지문에 반영된 사회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이디어 생성하기	· 판소리계소설에서 재담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까닭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재담의 활용과 사회상과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 활동지
	아이디어 평가하기	·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활동지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조원들끼리 토의하고 서로의 생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토의 중 소란스럽지 않도록 지도
	일반화	1. 재담의 사회적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사회상을 반영하고,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2.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당시의 사회상은 어떠했는가? - 신분제도가 있었으며, 지배층들의 수탈이 있었고, 신흥 지주층들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적용학습	· 활동지를 제시하고 풀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판소리계소설의 지문과 현대 소설의 지문을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판소리계소설의 지문과 현대 소설의 지문을 비교하고 사회상의 차이점과 이것이 재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한다.	- 활동지 배부
정 리 (7′)	학습정리 및 학습목표 재확인	· 본시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 작품에 나타난 당시의 시대상황을 알아보고, 재담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문점은 질문한다.	- PPT 자료

	형성평가	·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학습 내용을 <형성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 본시 수업을 상기하며 <형성평가>지를 해결한다. · 정답을 통해 자신의 성취수준을 파악한다. - 평가 기준 2문제 이상 해결 : 상 1문제 이하 해결 : 하	-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의 이해를 점검한다. - 형성평가지 자료
	차시 예고 및 과제제시	· 차시 예고 및 과제를 제시한다. - 조별 과제 : 판소리계 소설 텍스트를 바탕으로 연극 대본 작성해오기	· 차시 수업 내용과 과제를 확인한다.	

<7학년 3차시>

지도일시	2011년 4월 5일	대상	1-1반(35명)	장소	1-1 교실	시간 계획	45분
교 사	박 현 정	차시	3/3	수업조직	모둠별 학습		
대단원				학습자료	교과서, 학습지, 노트북 프로젝션 TV, PPT		
소단원							
학습목표	1.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들을 수 있다. 2. 재담을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다.						

과정	지도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	상호 인사 및 출석 확인	· 상호인사 및 학습 환경을 정비한다. · 출석을 확인한다.	· 수업태도를 갖춘다.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입 (8′)	선행 학습 및 과제 확인	· 선행학습 했던 내용을 질문하여 요약 정리한다. - 재담의 사회적 기능과 작품이 시대상을 반영하	· 선행 학습 내용을 떠올리며 내용을 확인한다.	- PPT 자료 활용

		고 있음을 확인한다. · 과제를 확인한다.	· 과제: 조별로 판소리계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연극 대본 만들어오기	- 모둠별로 준비
	학습 동기 유발	· 영화 <춘향전> 중에서 재담이 잘 드러난 일부 장면을 보여준다.	· 영화 장면을 보며 재담을 적절하게 듣고 말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영상 자료
	학습 목표 제시	· 본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 목표를 따라 읽으며 본시에 배울 내용에 대해 생각해본다.	-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 판서
전 개 전 개 (30´)	상황 설정 하기	· 재담을 말하고 듣는 상황을 설정하고, 조별로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말하고 듣는 상황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생각하며 대본을 정독한다.	- 대본
	준비 및 연습하기	· 대본에 맞추어 역할을 나누게 하고 연습 시간을 준다.	· 말하는 역할과 듣는 역할을 나누고, 대본에 따라 연습하되, 효과적인 표현과 적절한 듣기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 소란스럽지 않도록 지도
	실연하기	· 조별로 돌아가며 실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듣는 입장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듣는 입장을 실연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 소란스럽지 않도록 지도
		- '실연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조가 실연하고 있는 재담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듣는 상황에 있는 조원들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듣기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평가하기	· 실연을 보고 재담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대화에 대해 정리한다.	· 실연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고 정리한다.	- 자율 발표

		· 학생들의 실연에 대해 평가한다.		
정 리 (7′)	학습정리 및 학습목표 재확인	· 본시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 재담을 효과적으로 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들을 수 있다.	·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문점은 질문한다.	- PPT 자료
	형성평가	·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학습 내용을 <형성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 본시 수업을 상기하며 <형성평가>지를 해결한다. · 정답을 통해 자신의 성취수준을 파악한다. - 평가 기준 2문제 이상 해결 : 상 1문제 이하 해결 : 하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의 이해를 점검한다. -형성평가지 자료
	차시 예고 및 과제제시	· 차시 예고 및 과제를 제시한다.	· 차시 수업 내용과 과제를 확인한다.	

3.2.2. 9학년

9학년의 재담 관련 성취기준에서는 재담을 직접 재연하거나 소재를 찾아 재구성하여 짧은 재담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 속에 재담을 섞어 가며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재담의 말하기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용만을 전달하는 말하기가 아니라, 청자가 몰입해 웃을 수 있을 정도로 실감나는 말하기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반언어적 표현도 말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학년 재담 관련 수업은 총 3차시로 구성하였으며, 성취 기준에 제시된 내용 요

소를 기본으로 하고, 비언어적·반언어적 표현에 대해 알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목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1차시는 해학의 구조와 표현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므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수업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직접교수법을 학습 모형으로 하여 구조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해학과, 표현상의 면에서 나타나는 해학을 구분하여 지도하고, 학습자가 실제 텍스트를 보고 해학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2차시는 판소리계소설 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전통적인 해학에 대해 학습자가 느끼고 해학의 기능에 대해 시대상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학습 모형으로는 전문가협력학습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판소리계소설 작품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토끼전>, <화용도>의 다섯 작품 중 일부를 제시하고 각자 맡은 부분을 통해 작품 속에 드러난 시대상을 파악하고 해학의 기능에 대해 토의하여 일반화시키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3차시는 실제로 전통 해학을 비언어적·반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재담에 활용하는 말하기 적용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가 비언어적·반언어적 표현에 대한 사전 지식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교사의 설명과 시범이 먼저 이루어지고, 미리 제시된 판소리계소설 대본을 통해 학습자들끼리 서로 역할을 정하여 실연해보는 역할놀이 학습모형을 변형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 해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재담의 말하기에 직접 적용하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충분히 해학과 재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9학년 1차시>

지도일시	2011년 4월 1일	대상	3-1반(35명)	장소	3-1 교실	시간계획	45분
교 사	박 현 정	차시	1/3	수업조직	모둠별 학습		
대단원				학습자료	교과서, 학습지, 노트북 프로젝션 TV, PPT		

소단원				
학습목표	1. 해학의 구조와 표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해학 문화가 나타나 있는 작품을 파악할 수 있다.			
과정	지도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8´)	상호 인사 및 출석 확인	· 상호인사 및 학습 환경을 정비한다. · 출석을 확인한다.	· 수업태도를 갖춘다.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선행 학습 및 과제 확인	· 선행학습 했던 내용을 질문하여 요약 정리한다. -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재담에 관해 문답한다. · 과제를 확인한다.	· 선행 학습 내용을 떠올리며 내용을 확인한다. · 과제: 교과서 텍스트 읽기	- PPT 자료 활용
	학습 동기 유발	· '안동 하회 탈놀이의 한 과장을 보여준다. - 탈놀이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영상을 보면서 탈놀이를 당시 사람들이 왜 즐겼는지를 생각해 본다.	-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 영상 자료
	학습 목표 제시	· 본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 목표를 따라 읽으며 본시에 배울 내용에 대해 생각해본다.	-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 판서
전개 전	설명하기	· 해학의 구조와 표현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한 내용은 정리한다.	- 판서
	시범보이기	·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에 나타난 구조와 표현 특징을 활동지를 보며 찾는다.	· 교사가 시범 보이는 활동을 주의 깊게 보며 확인한다.	- ppt 자료

개 (30′)	질문하기	· 질문을 통해 가르치고자 한 내용을 학생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질문한다.	- ppt 활용
		1. 해학의 정의는 무엇인가? - 익살스럽고 웃음을 주는 행동이나 말입니다. 2. 재담에서 해학은 어떤 식으로 표현 되는가? - 구조적인 면이나, 언어 표현상으로 드러납니다. 3. 우리나라의 전통 해학은 어느 장르에서 많이 나타나는가? - 판소리, 탈놀이와 같은 서민들이 즐겼던 일상적인 문학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모둠학습	· 모둠별로 활동지를 푼다. · 조장이 모둠 활동지를 발표한다. ·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난 뒤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보충설명 한다.	· 모둠별로 활동지에 제시 된 지문을 읽고 해학적인 요소를 찾아낸다. · 자신의 모둠 활동 학습지와 비교해가며 주의깊게 듣는다. · 답안과 비교하여 모둠의 결과물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 활동지 배부
정 리 (7′)	학습정리 및 학습목표 재확인	· 본시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 해학의 구조와 내용 표현 요소를 알 수 있다.	·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문점은 질문한다.	- PPT 자료
	형성평가	·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학습 내용을 <형성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 본시 수업을 상기하며 <형성평가>지를 해결한다. · 정답을 통해 자신의 성취수준을 파악한다. - 평가 기준 2문제 이상 해결 : 상 1문제 이하 해결 : 하	-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의 이해를 점검한다. - 형성평가지 자료

	차시 예고 및 과제제시	· 차시 예고 및 과제를 제시한다. - 활동지 배부	· 차시 수업 내용과 과제를 확인한다.	

<9학년 2차시>

지도일시	2011년 4월 3일	대상	3-1반(35명)	장소	3-1 교실	시간 계획	45분
교 사	박 현 정	차시	2/3	수업조직	모둠별 학습		
대단원				학습자료	교과서, 학습지, 노트북 프로젝션 TV, PPT		
소단원							
학습목표	1. 해학문화가 반영된 작품을 읽고 반영된 시대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해학 문화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다.						

과정	지도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8′)	상호 인사 및 출석 확인	· 상호인사 및 학습 환경을 정비한다. · 출석을 확인한다.	· 수업태도를 갖춘다.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선행 학습 및 과제 확인	· 선행학습 했던 내용을 질문하여 요약 정리한다. - 해학의 구조와 표현 특징에 대해 질문한다. · 과제를 확인한다.	· 선행 학습 내용을 떠올리며 내용을 확인한다. · 과제: 활동지 풀어오기	- PPT 자료 활용
	학습 동기 유발	· 해학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 2007년 11월 25일 한겨레신문 기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웃음이 가지는	· 사진을 보면서 해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한다.	-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 사진 자료

		원동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학습 목표 제시	· 본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 목표를 따라 읽으며 본시에 배울 내용에 대해 생각해본다.	-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 판서
전개 전개 (30´)	계획하기 (모집단)	· 모집단 별로 작품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 · 작품에 나타난 해학적 표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점에 대해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 판소리계소설의 다섯 작품을 조원 한 명당 하나씩 맡는다. ·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 작품을 정독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 탐구 (전문가 집단)	· 전문가 집단별로 모여 작품을 읽고 느낀 시대적 상황과 해학적 표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토의하도록 지도한다.	· 각자의 생각을 조리 있게 토의하여 서로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 활동지
	상호 교수 (모집단)	· 각자 전문가 탐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서로 공유한다.	·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상호교수에 참여한다.	-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 각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 작품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해학의 성격에 대해 일반화한다.		
		· 전체 발표를 준비한다.		
정리 (7´)	발표 및 정리	· 전체 앞에서 발표하고 얻은 결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우리나라 해학 문화의 전통에 대해 이해하기	·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문점은 질문한다.	

	형성평가	·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학습 내용을 <형성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 본시 수업을 상기하며 <형성평가>지를 해결한다. · 정답을 통해 자신의 성취수준을 파악한다. - 평가 기준 2문제 이상 해결 : 상 1문제 이하 해결 : 하	-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의 이해를 점검한다. - 형성평가지 자료
	차시 예고 및 과제제시	· 차시 예고 및 과제를 제시한다. - 판소리계소설 대본 읽어오기	· 차시 수업 내용과 과제를 확인한다.	

<9학년 3차시>

지도일시	2011년 4월 5일	대상	3-1반(35명)	장소	3-1 교실	시간계획	45분
교 사	박 현 정	차시	3/3	수업조직	모둠별 학습		
대단원				학습자료	교과서, 학습지, 노트북 프로젝션 TV, PPT		
소단원							
학습목표	1. 비언어 · 반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전통 해학을 재담에 활용할 수 있다.						

과정	지도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 입 (8′)	상호 인사 및 출석 확인	· 상호인사 및 학습 환경을 정비한다. · 출석을 확인한다.	· 수업태도를 갖춘다.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선행 학습 및 과제 확인	· 선행학습 했던 내용을 질문하여 요약 정리한다. - 우리 전통 해학문화에 대해 질문, 정리한다. · 과제를 확인한다.	· 선행 학습 내용을 떠올리며 내용을 확인한다. · 과제: 대본 읽어오기	- PPT 자료 활용
	학습 동기 유발	· 짤막한 구연동화 영상을 보여준다.	· 영상을 보면서 억양과 손짓이 주는 효과에 대해 생각	-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해 본다.	않도록 한다. - 영상 자료
	학습 목표 제시	· 본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 목표를 따라 읽으며 본시에 배울 내용에 대해 생각해본다.	-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 판서
전 개 (30´)	설명하기	·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의 정의와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 비언어·반언어적 표현이 말하기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 판서
	시범 보이기	· 비언어적·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말하기를 시범 보인다.	· 말하기에 사용되는 비언어·반언어적 표현들을 주의깊게 본다.	
	준비 및 연습하기	· 준비된 대본을 바탕으로 역할을 정하고 연습하도록 한다.	· 효과적인 말하기에 유의하면서 대본을 연습한다.	
	실연하기	· 전통 해학을 재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재담의 효과적인 표현에 대해 생각해보며 실연에 임한다.	
	정리하기	· 각자의 재담 실연을 보고 느낀 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느낀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정 리 (7´)	발표 및 정리	· 재담에 나타난 우리나라 전통 해학을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리한다.	· 우리나라 전통 해학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대에 전통 해학을 전승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확대시킨다.	
	형성평가	·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학습 내용을 <형성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 본시 수업을 상기하며 <형성평가>지를 해결한다. · 정답을 통해 자신의 성취수준을 파악한다. - 평가 기준 2문제 이상 해결 : 상 1문제 이하 해결 : 하	-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의 이해를 점검한다. - 형성평가지 자료
	차시 예고 및 과제제시	· 차시 예고 및 과제를 제시한다.	· 차시 수업 내용과 과제를 확인한다.	

Ⅳ. 결론

재담은 남을 웃게 만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한다. 우리 문학의 탈놀이나 판소리, 또는 설화와 같은 장르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재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재담은 우리 민족의 삶과 관련이 깊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판소리계소설은 다른 고소설들과는 달리 재담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문학적으로 중요한 텍스트이다. 설화를 근간으로 하여 판소리 사설을 거쳐 소설로 정착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 혹은 소설이 먼저 형성된 이후에 이것이 사설로 불리웠다는 설도 있지만, 판소리계소설은 그 선후 관계를 떠나 판소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구어체의 문장 속에 많은 재담이 수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재담에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은 까닭에, 여기에서는 먼저 현대 화법의 이론을 적용시켜 재담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았다. 재담의 유형에는 학자들에 따라 많은 이견들이 있어왔지만, 손세모돌의 논의를 바탕으로 웃음 발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언어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언어적인 요소로는 중의적인 표현, 음상 유사의 활용, 대구, 사투리, 단어나 어구 파괴하기 등이 있으며 내용적인 요소로는 대상 희화하기, 대상의 특성이나 전형성 이용하기, 상식 깨트리기, 동문서답하기, 의사소통 실패 이용하기 등이 있다.

그리고 판소리계소설 중 현재 판소리 열두 마당 중 남아있는 다섯 마당인 <춘향전>, <토끼전>, <흥부전>, <심청전>, <화용도>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여기에 나타난 재담을 현대 재담 이론에 적용시켜 그 종류를 분류하였다.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로 구분했는데, 이것은 재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활용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언어적인 요소를 활용한 방식으로는 언어유희의 사용, 다양한 수사 표현, 속담과 수수께끼, 삽입가요를 제시했고 내용적인 요소를 활용한 방식으로는 서술자의 개입, 인물의 비속화, 긴장의 조성과 완화, 금기의 일탈을 제시했다.

이런 다양한 유형의 재담들이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교재로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재담과 우리 전통 문학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토대로 삼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보조적 수단으로만 제시되었던 '재담'이 각각 7학년과 9학년에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볼 때 재담을 실생활에서 말하고 듣는 행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각급 학교의 교과서가 바뀌게 되었다. 국어교과서도 기존의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바뀌게 되었는데 2011년 현재 8학년 교과서까지 출판되었고, 9학년은 검정 중인 상태이다. 바뀐 검정교과서는 7학년이 23종, 8학년이 15종인데 각각 판소리계소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소리 관련 작품들이 제재글로 수록되어있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재담관련 성취기준에 판소리계소설이 제시된 경우도 있었지만, 다양한 성취기준으로 구성된 단원들에게 판소리계소설이 제재글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작품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판소리계소설 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흥부전>과 <토끼전>을 중심으로 제재글이 구성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판소리계소설 작품을 학습자들이 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기에서는 판소리계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재담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장의 마지막에는 판소리계소설을 교육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해학과 전통성에 대한 이해라는 내용적인 측면과, 동시에 판소리계소설 텍스트를 수업에 활용한 지도안을 7학년과 9학년 별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 현대 화법 이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 고전 문학 양식에 나타나는 재담의 유형과, 현대 서양 화법 이론의 재담의 유형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담에 대한 유형 분류 역시 요소별 구분을 통해 분류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어 실제 재담의 유형화가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개정 교육과정이 교수-학습 활동에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9학년의 교과서는 아직 검정중이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현재 재담의 연구, 재담의 유형에 관한 연구 및 재담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문학에서 재담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좀 더 재담에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분류 양식이나 교육방법이 제시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구인환, 『토끼전』, 신원문화사, 2003.

김대행, 『우리시대의 판소리문화』, 역락, 2001.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90.

김윤석, 『남원고사 원전비평』, 보고사, 2009.

김인환, 『문학교육론』, 한국학술정보, 2005.

김진영 외 교주, 『흥보전』, 민속원, 2005.

김진영·김현주 역주, 『토끼전』, 박이정, 1998.

김진영·김현주 역주, 『화용도』, 박이정, 1998.

김현주, 『판소리 담화 분석』, 좋은날, 1998.

서대석, 『한국 구비 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이상근, 『해학 형성의 이론』, 경인문화사, 2004.

이석래 역주, 『춘향전』, 범우, 2004.

임동철,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 연구』, 민속원, 1999.

임형택, 『흥보전』, 박이정, 1997.

전영진 편, 『심청전』, 홍신문화사, 2002.

정병헌, 『판소리와 한국 문화』, 역락, 2002.

정충권, 『흥부전 연구』, 월인, 2003.

정하영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3, 고려대학교 민족문활연구소, 1995.

조동일,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 비평사, 1985.

최동현 교주, 『김연수 완창 판소리 다섯바탕 사설집』, 민속원, 2008.

최동현, 『수궁가 연구』, 민속원, 2001.

최지현,『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7.
한채화,『개화기 이후의「춘향전」연구』, 푸른사상, 2002.
허재영,『국어과 교과서와 교재지도 연구』, 한국문화사, 2006.

논문

구현정,「유머 담화의 구조와 생성 기제」,『한글』248, 한글학회, 2000.
기경숙,「판소리 교육을 위한 문학과 음악의 융합적 모형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아란,「판소리 소설 지도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김영동,「판소리 관련 고소설의 재담고」,『동악어문논집』35, 동악어문학회, 1999.
김욱동,「춘향전의 수사학」,『수사학』12, 한국수사학회, 2010.
김인희,「중등학교 판소리계 소설의 수용양상과 교수-학습 지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김종군,「<열녀춘향수절가>의 구연적 과장 표현 양상과 그 의미」.『판소리연구』19, 판소리학회, 2005.
김태준,「<남원고사>의 삽입 문예양식과 그 민중적 성격」,『한국문화연구』1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9.
남경완,「유머 텍스트의 내적 구조와 추론 양상」,『텍스트언어학』1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2.
남명희,「흥부전에 나타난 골계의 양상과 기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류수열,「판소리 사설의 언어유희와 그 구연적 성격」,『국어교육』10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류수열,「판소리의 오락적 형식으로서의 경합」,『웃음문화』5, 한국웃음문화학회, 2008.
류종영,「유머와 위트」,『인문과학』16, 목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박갑수, 「춘향전의 해학적 표현(上)」, 『아세아여성연구』 18,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 연구소, 1979.
박갑수, 「춘향전의 해학적 표현(下)」, 『아세아여성연구』 20,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 연구소, 1981.
반은경, 「판소리계 소설의 주변 인물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변창구, 「진술문종류로서의 재담」, 『논문집』 12, 순천향대학교, 1989.
사진실, 「배우의 전통과 재담의 전승」, 『한국음반학』 10, 한국고음반연구회, 2000.
서종문, 「소리판과 판소리 사설」, 『판소리연구』 28, 판소리학회, 2009.
성호주, 「한국어의 언어유희」, 『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83.
손세모돌, 「유머 형성의 원리와 방법」, 『한양어문』 17, 한국언어문화학회, 1999.
손세모돌, 「토크쇼에서의 웃음 유발 장치」, 『한양어문』 18,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손행규, 「판소리계 소설의 희극성과 계승문제」, 『한국어문학연구』 19, 동악어문학회, 1984.
안성준, 「판소리계 소설 지도 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우선미, 「판소리의 국어교육 활용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유연행, 「판소리계 소설 교육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윤민철, 「유머의 유형 분류에 관한 고찰」, 『우리말연구』 27, 우리말학회, 2010.
윤영은, 「영어와 한국어 언어 유머 비교 분석」, 『영어학연구』 5, 이화여자대학교 영미학연구소, 2000.
윤천탁, 「국어교육에서 유머 텍스트의 활용 방안」, 『청람어문교육』 25, 청람어문학회, 2007.
이강엽, 「판소리 사설의 문체연구」, 『열상고전연구』 1, 열상고전연구회, 1988.
이도영, 「유머 텍스트의 웃음 유발 장치」, 『텍스트 언어학』 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999.
이미영, 「판소리계 소설 지도 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이원규, 「교과서에서의 재담 교육 구현 방향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정경균, 「판소리계 소설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정충권, 「판소리계 소설의 민중성과 대중성」, 『개신어문연구』 23, 개신어문학회, 2005.
정혜민, 「재담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최정락,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방법상 특성」, 『문학과 언어』 7, 문학과언어연구회, 1986.
한성일, 「유머 텍스트의 구조와 원리」, 『화법연구』 7, 한국화법학회, 2004.

부 록

<활동지 1> 7학년 1차시

1학년 반 이름:

※ 다음 지문은 <흥부전>의 한 장면입니다.

흥보가 밥 먹는다. 흥보가 밥을 먹는다. 뚝, 딱, 뚝, 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뭉쳐 가지고, 올라가거라. 딱. 흥보가 밥 먹는다.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뭉쳐 가지고, 올라가거라. 딱, 딱.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아이고, 어찌 많이 먹어 놨던지 흥보가 밥을 먹다 죽는다.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아이고, 영감, 정신 차이로. 아이고, 우리 영감 돌아가시네. 밥 먹다가 죽다니. 배고파 죽겄더니, 이젠 밥 많이 먹어 돌아가시네. 아이고, 정신 차려. 아아아!"

한참 이러고 있을 적에 흥보 큰아들 놈이 누룽지 긁으러 돌아다니다가, "나갔던 상주(喪主) 제청에 달려들 듯 썩 돌아들며,

"여, 밥판이 어찌 되었소?"

"아이고, 이놈아. 밥판이고 무엇이고, 너희 아버지 밥 자시다 세상 버리신다."

"밥 먹다가 죽는 걸 뉘네 아들놈이 안단 말이오? 어디 아버지 배 좀 봅시다, 예? 아, 배에 밥이 환하니 비쳤소, 비쳐, 우리 강아지 한 마리 몰아넣읍시다."

"이놈아, 강아지가 들어가서 어쩐다냐?"

"아, 밥을 팍팍 파먹을 게 아니오?"

"밥은 파먹는다 하고, 강아지는 어디로 나온다냐?"

"그럼 호랑이를 몰아넣지요."

"호랑이가 들어가서 어쩐다냐?"

"강아지를 콱 잡아먹을 게 아니오?"

"강아지는 잡아먹는다고 하고, 호랑이는 어디로 나오게야?"

"그러기에 포수를 또 몰아넣지요."

"포수가 들어가 어쩐다냐?"

"총으로 꿍 놓으면 호랑이는 죽지 않겠소?"

"아이고, 아놈아. 호랑이는 죽는다 하고, 그럼 포수는 어디로 나올 것이냐?"

"그러기에 나라님 거동령을 아버지 볼기짝에다가 때려 붙여 보시오. 나오나 안 나오나."

1. 위 이야기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2. 앞서 배웠던 다양한 표현법들을 바탕으로 위 지문에 쓰인 재미있는 표현을 찾아보고,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었는지 정리하도록 하시오.

3. 이외에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밑줄과 함께 그 이유를 쓰시오.

<활동지 2> 7학년 2차시

1학년 반 이름:

※ 다음은 <춘향전>의 줄거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어느 봄날, 전라도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방자와 광한루에 놀러 나왔다가 퇴기 월매의 딸인 춘향이 자신의 몸종인 향단을 데리고 그네를 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광경을 본 이 도령은 춘향의 자태에 반해 백년가약을 맺는다. 이때 둘의 나이는 16세. 백년가약을 맺고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고 있을 무렵, 이 부사가 서울로 영전하게 되어 몽룡과 춘향은 이별한다. 신임 부사 변학도는 성격이 포악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부임하자마자 춘향에게 수청을 명하고, 이를 춘향은 이도령과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거절하여 옥에 갇힌다. 서울로 올라간 몽룡은 장원 급제하여 호남 지방에 암행어사로 내려와, 부사의 생일날 어사 출도를 단행하여 부사를 파직하고 춘향을 구해 행복하게 된다.

1. 위의 줄거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2, <춘향전>은 판소리계소설이다. 판소리계소설에는 유독 재담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 다음은 판소리계소설 <심청전>과 현대소설 <흐르는 북>의 일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온 동네가 시끌시끌해. 뱃사람들이 사람을 산다잖아. 그런 일이 정말로 있을까? 심청이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고 귀를 쫑긋 세웠어.

“우리는 남경으로 장사하러 가는 뱃사람인데 인당수 용왕님께 바칠 처녀를 구하오. 얼굴 곱고, 몸에 흉이 없으며, 마음씨 착한 15세나 16세 처녀 어디 없소? 큰 값을 주고 사려 하니, 있으면 말해 주시오.”

심청이는 반가운 마음에 뱃사람을 붙들어,

“저는 심청으로 열다섯 살이옵니다. 저를 사시겠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몸을 팔려는 것이오?”

“앞 못 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면 쌀 삼백석이 필요해요. 더도 말고 쌀 삼백 석만 주셔요.”

뱃사람들은 몽운사로 쌀 삼백 석을 보내 준다고 했어. 돌아오는 15일에 배가 떠나니 그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

심청이는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려.

“아버지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에 바쳤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셔요.”

심 봉사는 깜짝 놀랐어.

“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쌀 삼백 석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얼마 전에 장 승상 댁 부인이 소녀를 부른 적이 있지요?”

“그래. 내가 개천에 빠진 날 아니더냐?”

“예. 그날 부인께서 소녀를 수양딸로 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의 눈이 되어야 한다고 거절했었지요. 하지만 소녀, 아버지의 눈이 되는 대신 잃어버린 눈을 찾아 드리려고 해요.”

그날 밤, 민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춤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뭇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좍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걔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늬들 체면 깎았냐.”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 위 두 지문에 드러난 옛 사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사회 모습에 대해 서술하시오.

옛날	오늘날

<활동지 3> 9학년 1차시

3학년 반 이름:

※ 다음 지문은 흥부전의 이본인 <장흥보전>의 한 장면입니다.

이때에 놀보 계집 배가 고파 박 한 통을 국을 끓여 맛을 보니,
"그 박국 맛나도 맛나여라."
초란이 박을 삶아 먹고 미쳤던 것이었다. 초란이 같이 당동거려 말마다 당동, 나도 당동, 절마다 당동, 놀보 이른 말이,
"이렇게 집안이 망하니 계집년이 다 미치는구나."
"저의 아범 잡숴 보오. 당동."
"내 한 그릇 먹어 보마."
놀보 떠 맛보더니
"참 그렇게 살아도 절마 당동, 그렇게 잃어 당동, 참기는 어려우리 당동, 어찌 차마 당동."
이리할 제, 이웃집 엄 생원이 내다르며,
"양반의 집 옆에서 잡스럽게 당동이니 둥덩이니 웬 소리냐."
"여보, 생원님. 들어와서 이 국 좀 잡수어 보시오. 당동."
"이놈, 이리 내어라. 양반이야 그러하랴, 먹어 보자."
이 양반 채 먹도 아니 하여 당동거리던 것이었다. 이 양반이 읊어대되,
"차가 박국을 일포식하니 당동, 지성이 구자출이라 당동."
그 동네 남자, 여자, 어린아이가 그 박국 먹은 대로 아희도 당동, 어른도 당동, 구십 노인도 당동할 제, 놀보 탄식하며 하는 말이,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살림살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이 지경이 어인 일고. 이제는 할 일 없네. 걸식이나 하여 보세."
이때에 흥보는 좋아하는 친구 벗님과 일등 명창 데리고 경치가 빼어난 곳에 찾아가서 종일토록 놀다가 집에 와 궁궐같이 높은 집에 신선같이 누웠으니 착한 일을 하며 쌓은 덕 때문 아니겠는가. 어화 세상 짬들아, 이 책을 보매 흥보의 어진 마음 본을 받아행하면 자연 복이 돌아오고 자손이 성공하느니라. 만일 마음을 나쁘게 먹어 놀보의 심술을 한 가지라도 본을 받아 행하면 재앙이 곧 돌아오느니 부디부디 명심하여 어진 마음 본을 받고 악한 일을 행치 마라. 성심 공덕 하옵시오.

1. 위 장면에서 나타난 해학적인 부분을 찾으시오.

_____

_____

_____

2. 제시된 지문에서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이것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 쓰시오.

3. 해학적인 표현은 그 자체로 풍자적 효과를 드러내기도 한다. 위 지문에 나타나 있는 풍자적 내용에 대해 쓰시오.

<활동지 4> 9학년 2차시

3학년 반 이름:

※ 다음 지문은 <토끼전>의 줄거리 요약입니다.

어느 날, 북해 용왕이 병을 얻게 된다. 백방으로 약을 수소문해도 왕의 병이 깊어지는 가운데, 홀연히 어느 도사가 나타나 용왕의 병에는 토끼의 간이 특효약임을 말해준다. 토끼를 잡아줄 신하를 찾는 용왕에게 자라가 자신이 토끼를 잡아 올 것임을 아뢴다.

그리하여 육지에 올라온 자라는 토끼를 만나, 감언이설로 토끼를 꼬드긴다. 꼬임에 넘어간 토끼는 아내와 작별인사도 하지 않은 채 자라의 등에 올라타서 용궁으로 갔다. 하지만 용궁에 도착하자 토끼는 결박당한다. 용왕은 토끼를 무릎을 꿇린 뒤 자신을 위해 죽는 공을 치하해 주겠다며 간을 내놓으라 한다.

토끼는 자라에게 속은 것을 알자 정신이 아득해 졌다. 그러나 문득 묘한 꾀를 생각해 냈다.

자신의 간을 높은 산, 깊은 바위틈에 감춰놓고 다닌다고 거짓말을 아뢰었다. 하지만 용왕은 믿지않고 토끼의 간을 꺼내라고 명령하자 토끼는 또 다시 용왕을 설득한다.

신하인 자가사리는 토끼의 간을 한시라도 바삐 꺼내라고 하지만 이미 토끼의 말을 믿기 시작한 용왕은 기꺼워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낸다.

이에 용왕은 토끼를 구슬려 간을 가져오게 하려했다. 용왕은 토끼를 위해 크게 잔치를 열어 대접한다.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다시 육지로 간을 가지러 간다. 육지에 올라오자 토끼는 재빨리 도망치고 자라는 토끼에게 속은 사연을 적어 바위에 붙이고 머리를 박고 죽어버린다.

별주부(자라)가 소식이 없자 용왕은 거북을 보내어 자세한 사정을 알아 오라 분부한다. 거북은 바위글과 별주부의 시체를 용왕에게 아뢰니 용왕은 별주부를 불쌍히 여겨 후하게 장사를 지내 주고 용왕은 태자에게 자리를(왕위)물려주고 죽었다.

1. 문학작품은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토끼전>의 지문을 보고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의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토끼전의 인물들은 각기 다양한 인물들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대상황을 바탕으로 인물들이 나타나내는 다양한 인물들을 추론해 내시오.

토끼	
별주부	
자가사리	

3. 토끼전은 판소리계소설로 그 이본이 많고 이본에 따라 결말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토끼전의 다양한 결말을 정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쓰시오.

4. 토끼전에 이렇게 다양한 결말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_____

_____

_____

_____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	학 번	20088168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박현정 한문 : 朴泫貞 영문 : Park Hyunjung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1072 금호타운 103동 908호				
연락처	E-MAIL : kkotmew@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난 재담의 유형과 교육방향 영어 : A Pattern of witty story and A Scheme of Education in the Novel of Korean Pansori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0) 반대( )

2011년 8월 일

저작자: 박 현 정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